

고린도전서 강해 미

고린도전서 개요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5년경, 성격: 교회를 위한 편지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1:2 참조)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에서 유래되었다(1:2).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곳을 방문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1년 6개월 있으면서 교회를 세움(행18:1-7). 이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공존한 매우 큰 교회였다.

고린도는 로마 사람들의 통치하에 있던 항구 도시로 죄와 방탕이 가득한 사악한 도시였다(몇 대 도시).

내용: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듣게 되었고 이 편지에서 먼저 이 교회를 책망한다. 그는 그들이 이방인들의 지혜와 철학에 물들어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교회의 분열(1-4장), 법정 소송, 이혼, 여인들의 옷차림, 주의 만찬 등과 관련된 도덕적 무질서(5-11장), 영적 선물(12-14장), 성도들의 부활(15장) 등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준다.

고린도전서는 16장, 437절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3장(사랑), 15장(부활)

핵심 단어: 지혜, 핵심 구: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14:40)

고린도전서의 그리스도: 죽은 자들의 첫 열매(15:20)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 늘 발생하는 문제이며 특히 영적 선물(은사) 문제는 기록/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초보 신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교회 내부에서 외부로 흘러나가면서 불신자들에게도 알려짐

고린도에는 이상 숭배 신자들이 많았다(롬1:18-32). 특히 성적 타락이 극심함.

고린도 교회 문제들의 원인: 도시의 문제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옴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동화됨(롬12:1-2)

요즘 사람들의 말: “예수님은 좋은 데 교회는 아니다.”,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한다. 가나안 교인들이란 가나안(천국)을 소유한 구원 받은 교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는 교회에 다녔지만 교인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결함이나 신앙의 이중성 등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실족하여 현재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에도 출석하지 않는 교인, 곧 교회에 '안나가'는 교인을 일컫는 말이다. 서구에선 이런 사람들을 '소속 없는 신앙 (believing without belonging)' 또는 '교회 없는 기독교인(unchurched Christian)'이라 부르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안나가'는 교인이라는 뜻으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한다.

실제로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가 보여서는 안 될 많은 추태를 보였다.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 문제나 세상 정치보다 더 추한 모습의 교회 정치꾼들의 일탈은 성도들의 신앙에 회의를 주었고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또한 교회가 외형적 성장만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에 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등진 이들의 비판이나 정서적 반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이들의 지적처럼 정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 특히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철저한 회개와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소금이 아니라 부패의 매개 역할을 하고, 빛이 아니라 응달을 만드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오늘의 교회 침체나 신뢰 추락에 대하여는 그 상당 부분이 교회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고 이 '가나안' 교인을 양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¹⁾

2013년 5월 16일 목회사회학연구소(소장 조성돈)가 '가나안 교인' 316명을 설문조사하고 18명을 심층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가나안 교인'들은 초등학교 시절(46.7%)부터 5~15년(43.2%) 정도 교회를 열성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 활동(90.3%)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23.4%)나 30대(25.0%)가 되면 교회를 떠났고, 이미 교회를 안 나간 지 10년쯤(52.6%) 지난 상태였다. 이에 신학자들은 '가나안 교인'은 기존 교회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드러내는 '시대적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교회의 갱신이 없으면 더 떠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징조는 젊은 층에서 드러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미지가 나빠진 탓이 크다.”²⁾

교회의 부조리한 세습

WCC

불필요할 정도의 대형화

신사도 운동

1)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77>, 한국기독교공보 2013년 6월 21일, 가나안 교인들에게 고향

2) <http://wm2991.blog.me/50171541573>, 교회 안 나가는 국내외 교인들 늘고 있다- '가나안 성도'와 '포스트 크리스천'

고린도전서 강해 문

고린도전서 1장

1-3절: 바울 특유의 인사말, 바울은 이들의 문제들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1절: 바울은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행9:15-16; 갈1:15).

소스데네는 회당의 치리자(행18:17). 사도행전에서는 아직 회심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회심하여 바울과 함께 있음.

고린도 회당의 치리자 그리스보가 주님을 믿음(행18:7).

바울은 많은 경우 구술하고 다른 사람이 기록하였다(롬16:22). 어쩌면 소스데네가 이 일을 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매우 잘 알고 있음

2절: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구분됨, 구분된 자들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 성도는 saint(100회, 단수 4회, 복수 96회)

구약에서는 구약성도(단7:18, 21, 22, 25, 27), 신약에서는 신약성도(행9:32, 서신서 인사말), 환난기에서는 환난기 성도(계13:7, 10), 천년왕국 성도들(계20:9)

천주교회의 성인은 사람이 만든 saint, 교회의 saint는 하나님이 분리하신 saint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단히 중요한 말, 롬3:24-벧전5:14(총40회), (롬8:1-2), 반대 엡2:12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이 유익을 얻기를 원했다.

3절: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가장 좋은 말들

은혜 총 170회(창6:8; 계22:21 마지막 절), 누가복음 1회, 요한복음 4회, 사도행전 10회, 바울 서신 99회, 요1:16-17

평강(shalom), 총 429회, 하나님과의 화평(롬5:1; 요14:27; 16:33; 20:19, 21, 26)

4절: 이방인들이 받은 은혜(엡2:11-14; 살전1:6, 9-10; 롬11:11-12)

5절: 모든 말은 고린도 성도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 것

지식: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것,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것이 풍성하였다(고후8:7)

6절: 그리스도의 증언(그분의 복음 사역, 복음 그 자체)이 바울의 복음 선포와 기적들로 인해(히2:4; 고후12:11-12) 확고히 세워짐.

7절: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선물이 많았다(고전12:4). 타언어, 대언, 병 고침, 기적 등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였다(딤후4:7-8; 딤후2:11-13).

8절: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때(휴거부터 환난기, 천년왕국), 주의 날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심(살전5:23)

고린도전서 강해 ㄱ

고린도전서 1장

9절: 사도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신실함을 보여 준다. 신실함(faithfulness)은 하나님의 기본 속성, 그분이 자신과 자신의 창조 세계에 보이는 충성을 말한다(신7:9; 애3:22-23).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1. 자연에서(창8:22; 시119:90): 사계절, 해의 뜨고 짐, 옐로우스톤 파크, 가이저, Old faithful (평균 65분 만에 간헐천이 올라옴)
2. 자신의 친구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데서: 아브라함, 다윗
3. 자신의 원수들에게 경고하시는 데서, 아합과 이세벨
4. 시험의 때에(고전10:13)
5.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에(시119:75; 히12:6)
6.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때에(요일1:9)
7.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시143:1)
8.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에(고전1:8-9; 살전5:23-24; 살후3:3)
9. 자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실 때에: 히스기야
10. 우리의 구원 유지도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주님과 교제한다(같은 것을 나눈다 혹은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롬8:17)

고린도 교회의 분열: 본론으로 들어감

10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같은 것을 말하라(교리 등). 그런데 여기서는 12절의 파당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임, 생각과 판단에서 같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열이 생긴다.

과거의 나의 경험(형제와 목사 호칭), 모든 분열이 나쁜 것은 아니다(눅12:51). 그러므로 지혜를 써서 언제 분리해야 할지 또 그러면서도 상처를 덜 주고 덜 입는지 생각해야 한다. 많은 경우 교회 분열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생긴다(주로 인정받는 것).

11절: 다툼이 있다.

12절 바울, 아볼로(말에 능한 사람, 행18:24-28,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지방에서 말씀 사역), 게바(유대주의자들), 그리스도 파(바울을 무시하려는 사람들)

13절: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비꼬는 듯한 말, 바울의 이름 No(마28:19), 침례는 동일시되는 것(죽음, 매장, 부활 롬6:3-5), 교회의 두 규례 중 하나, 예수님의 명령(마28:19-20)

14-15절: 침례도 중요하지만 바울의 우선권은 구원에 있었다.

16절: 스테바나(고후16:15)

17절: 바울의 선택 목적: 복음 선포, 그런데 말의 지혜 즉 철학이나 미사여구로 하지 않는다(심리학).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말로 무엇을 해 보려고 노력하였다(행17장의 아테네, 스토아, 에피쿠로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후10:10). 복음 선포는 영적인 일 바울은 말이 어눌했다기보다는(행17 참조) 다른 철학자들과는 달리 수사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simplicity(고후1:12; 11:3): 대단히 중요한 말

철학으로 풀면 십자가가 무효가 된다. 사상가들에게는 매력이 없다. 행20을 보면 바울의 복음 선포 체험이 들어 있다(행20:19-21, 25, 27). 회개, 믿음, 하나님의 왕국 등 모든 계획을 선포하였다. 전통으로 풀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된다(막7:13).

고린도전서 강해 4

고린도전서 1장

- 18절: 십자가를 선포한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이 둘이 하나님의 파워이다.
십자가: 대신 속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를 속하는 유일한 방법, 개미와 사람 간의 대화
멸망하는 자들: 말의 지혜를 사용하는 자들
릭 워렌 등의 번영 복음, 교회에 가면 일상 문제 푸는 일에만 매진,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인다(딤후6:3-5).
하나님의 권능: 창조, 대홍수, 이집트 탈출, 홍해, 역사 섭리, 예수님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롬1:16-17, 엡3:20-21
- 19절: 사29:14 인용, 마11:25도 중요함
- 20절: 지혜로운 자(마2:1) 이방인들의 뛰어난 자, 특히 그리스의 철학자, 서기관: 유대인들의 성경
기록관, 변론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십자가로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고전3:20; 시62:9).
- 21절: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지혜(시8, 19) 혹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지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롬1:18-20, 22, 24). 복음 선포는 18절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게 여김. 성육신, 대신 속죄의 신비를 아는 자가 많지 않다. 죽어서 부활해야 함을
아는 이가 적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심지어 왜 교회에 가는지 모르고
어리석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
- 22절: 유대인은 모세 시절부터 국가를 이루면서 표적을 요구함(출4장, 막대기 뱀, 나병 표적), 이후로도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표적이 많이 나옴. 이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곧바로 표적을
요구함(마12:38-40), 사도행전의 타언어 표적, 고전14:22의 타언어 표적, 반면에 이방인들은 지혜
를 구함(행17:18, 32). 그래서 원어 성경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선포한다. 이것이 복음의 파워이다. 그러자 유대인(권능의
왕을 기대함), 이방인(지혜롭게 보이는 무언가를 기대함) 모두 여기에 실족한다(롬9:33; 벰전2:8).
아테네 복음 선포 실패 이후에 바울은 이것을 작정함
- 24절: 그래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엡1:19-21), 지혜이다(유일한 구원의 길).
- 25절: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여도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천지를 창조한 분의 창세 이전의 계획이다.
- 26절: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들은 구원받은 형제들이다. 우리를 돌아보자. 그리스도인들을 보자. 육체를
따라 세상에서 무언가 한 가닥 한다는 사람은 없다(요1:12-13).
- 27-29절: 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는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은 같은 수준에서 시작된다(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 등에서 차이가 없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엡2:8-9).
사람의 행위나 자랑거리가 더해지면 더 이상 구원이 아니다(롬10:1-11절 설명).
- a. 나의 이 사역은 내게 주어진 일이라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 이 세대를
섬기고 간다.
- 30-31절: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요1:12-13, 롬8:1-2).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 의, 거룩함, 구속이 되셨다(고전1:30).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한다(렘
9:23-24). 교인들 수, 침례 수 자랑 No!

고린도전서 강해 ㄷ

고린도전서 2장

1-2절: 주님만 자랑하려고 십자가만 선포한다(1:18-25). 설교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갈 6:14).

3-4절: 사도이지만 겸손하게 행하였다(행20:18-19, 고후10:1-12). 그래야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다. 설교자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파워가 나타나야 한다. 실증함(demonstration).

5절: 이렇게 할 때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다.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후1:24).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이것이 설교자 때문이 아님을 늘 인식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부실하게 설교하라는 말이 아니다.

6-8절: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이다.

- a.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고 아들이 실행하는 것은 심오한 진리
- b. 죄의 전가, 대신 속죄의 원리, 성육신의 신비
- c.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깨닫는 자들이 많지 않다.

6절의 완전한 자는 성숙한 자, 자라는 자를 뜻함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어린아이(히5:12-14 엡4:11-16)

이 지혜의 특징

- a. 하나님에게서 온다(7).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 b. 오래 동안 숨겨져 왔다. 미스터리이다(7절), 엡3장의 경우
- c.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대로 된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도 정하여졌다(행 2:22-23; 벰전1:18-20). d.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엡1:6, 12, 14).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공동 상속자가 된다(롬8:16-17, 28-30).
- e. 불신자들(세상 통치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다(8). 예수님 처형 시 주님의 말씀(행3:17; 눅23:34).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숨겨져 있다(엡3:9-11).

9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들(사64:4), 사64의 문맥,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 그들의 기도 가운데 70년 만에 회복됨. 놀라운 일, 지금 교회 시대에도 이런 일을 하신다. 또 장래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신다.

10-16절: 성령님의 사역

아버지의 계획, 아들의 실행, 성령님의 죄 확증, 구원은 이 세 분의 작품이다. 특히 성령님은 성도들의 삶에서 다음의 일들을 하신다.

- a.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어 알려주신다(10-11).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
- b.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내주, 12).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우리를 성전으로 삼는다(고전 6:19-20).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전12:13). 그리고 봉인하신다(엡1:13-14). 그리고 내주하신다(요14:16). 이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시다(고후3:17).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신다(롬8:15; 딤후1:7). 방종은 아니다.
- c. 가르치신다(13). 요14:26; 16:13, 가르침은 성경에 기반을 둔다. 특별 계시는 없다. 성경 외의 다른 데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칭의, 성화, 양자 삼오심, 화해 헌물, 영감, 선택, 예지, 예정 등을 잘 알아야 한다. 교리가 중요하다. 교리가 약하면 무너진다(시11:3). 어떻게 가르치는가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비교해서, 진리는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 d. 성숙하게 하신다(14-16).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 세 종류의 사람: 본성에 속한 자, 육신적인 자(고전3:1-3), 영적인 자, 영적 성숙의 척도는 분별과 판단: 천국지옥이야기,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다(롬11:33-36).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에 치중하다 보니 성령님 자체를 잊었다. 오순절/은사주의의 문제

고린도전서 강해 16

고린도전서 3장

바울은 3장에서 성도와 사역자와 교회의 일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질(9-23)과 양(5-9)과 성숙함(1-4)이 모두 필요하다.

1-2절: 세 종류의 사람, 히5:12-14

젖이 있고 음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젖(벧전2:2), 빵(마4:4), 음식(히5:11-14), 꿀(시119:103)

성도의 성숙도는 그의 음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3-4절: 육신적인 그리스도도인들의 특징, 시기, 다툼, 분열, 성경이 아니라 사람을 따른다.

성도의 성숙도는 그의 사귀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미성숙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목사는 성도들이 균형 있게 자라도록 인도해야 한다(엡4:1-16).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전12-14).

5-8절: 사역자는 누구인가?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한 자, 심고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각각 보상을 받는다.

사역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자라는 것)이고 겸손히 행해야 한다.

9-11절: 성도들은 하나님의 농사, 건물, 주건축자, 세우는 자,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12-15절: 그리스도의 심판석(베마)에서의 심판, 휴거된 이후 혼인 예식을 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을 심판한다. 근거: 행위(고후5:10-11)

이 심판에서는 구원을 잃는 일은 없다.

1. 생명의 왕관: 이것은 순교자의 왕관이며 성경에 두 번 언급되어 있다(약1:12; 계2:10).

2. 영광의 왕관: 이것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장로나 목양자들에게 주실 왕관이다(벧전 5:2-4).

3. 환희의 왕관: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받게 될 왕관이다(살전2:19-20; 빌4:1).

4. 의의 왕관: 이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을 왕관이며 그 날 즉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딤후4:8).

5. 썩지 않을 왕관: 이것은 승리자의 왕관이며 자기 몸을 복종시킨 자들 즉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것이다(고전9:25).

16-17절: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행5의 아니니야 삽비라, 고전5장의 음행하는 자, 10장의 이스라엘 사례, 11장 28-32 주의 만찬, 히12장의 징계(25-29절) 등)

18-23절: 다툼의 원인, 자기 자랑(요일2:15-17)

지혜를 구하라(잠2:1-5; 8:10-11): 지혜로운 계획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동기가 대단히 중요하다(히4:12-13)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

고린도전서 강해 ㄱ

고린도전서 4장

바울은 3장에서 교회의 일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질(9-23)과 양(5-9)과 성숙함(1-4)

4장에서는 사역자를 묘사한다. 청지기(1-6), 구경거리(7-13), 아버지(14-21)

목적: 6절 사역자는 우쭐대지 말라. 성도들은 사역자를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신실한 청지기(1-6)

1절: 바울은 자기를 포함한 베드로, 아볼로를 사역자라 하였다.

minister: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고전3:5), 로마의 배 밑에는 꾸준히 노를 젓는 자들이 있었다. 상관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사역자이다.

또한 그들은 청지기였다. 청지기의 특징: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요셉은 보디발의 청지기였다(창39). 이 주인의 것을 바울은 종종 '하나님의 신비들'이라고 하였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신비를 담고 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마13:11; 눅8:10), 올리브 나무의 신비(롬11:24-25),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롬16:25; 엡3:4),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고전2:7), 휴거의 신비(고전15:51), 하나님의 뜻의 신비(엡1:9),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엡3:2-3),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의 신비(엡3:8-9),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신비(엡5:32), 복음의 신비(엡6:19),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골1:26-27),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골2:2), 불법의 신비(살후2:7), 믿음의 신비(딤후3:9),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딤후3:16), 일곱 별의 신비(계1:20), 작은 책의 신비(계10:7-11), 바빌론의 신비(계17:5), 음녀와 짐승의 신비(계17:7)

2절: 청지기의 책무: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 그는 주인에게 신실한 자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이든 아볼로든 누구든 "내가 설교를 잘하나? 인기가 많으나?"가 아니라 "신실한가?"로 판단 받아야 한다. 눅12:41-48의 청지기

개인의 삶, 집, 말씀 사역 등에서 신실해야 한다.

3-4절: 좋은 언제나 판단을 받는다.

사람의 판단(3절), 바울은 이것을 큰 일로 여기지 않았다. 주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판단(3-4절): 바울은 스스로 판단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자랑하지 않았다. 사람의 판단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4절): 가장 중요하다(롬14:10; 고후5:10). 거기서는 사람들의 동기가 다 드러날 것이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형제들을 판단해서 바르게 서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전5:3; 6:2; 엡4:15; 잠27:17).

5절: 하나님의 사역자를 잘못된 때에 판단하지 말라. 주님의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주님과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다(삼상16:7; 렘17:9-10).

6절: 사역자를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자기들이 선호하는 기준으로 하지 말라.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말씀이다. 잘못된 동기로 판단하지 말라: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역자를 내려침.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가, 그대로 하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겸손한 청지기(7-13)

9절의 구경거리의 의미: 로마 정부는 사람들에게 여흥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극장과 운동장을 만들었다. 메인 행사가 끝나면 맨 마지막에 죄수들이 끌려나와 짐승과 싸웠다. 사역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7절: 사역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다. 침례자 요한(요3:27, 30)

8절: 바울은 조금 신랄하게 그들의 위치에 대해 말한다. 사역자들로 인해 성도들은 군림하는 자리에 이름, 성도들을 높여야 한다.

9절: 그 결과 사역자들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10절: 어리석은 자 됨. 바울의 경우 그대로 지냈으면 랍비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빌3:4-11), 그러나

그는 자기의 약함을 통해 영적인 강함을 얻었다(빌4:12-13; 고후12:7-10).
11-13절: 바울의 상태(행22:22), 너희가 나와 함께 하려 한다면 이런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신실한 사역과 겸손한 마음이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하다.

부드러운 아버지(14-21)

그는 여기서만 단 한 번 자기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임을 강조하였다.
14-15절: 바울이 고린도교회라는 가족을 낳았다. 그렇다고 그들을 지배하지는 않는다(고후1:24).
사실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에게는 교사들과 보호자들이 여럿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이다.
16절: 그는 모범이 되는 아버지였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나를 따르라고 말한다. 대담한 말(고전 11:1).
17절: 그는 좋은 교사였다. 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본 교리가 같아야 한다(엡 4:3-6).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 은혜의 복음, 섬김(행20:17-35)
18절: 그는 좋은 훈련사였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 가운데 지내면서 심히 교만하게 되었다(고전5:1-2).
좋은 부모는 아이들을 징계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하나님도 징계하신다. 히12
좋은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징계를 실천하는 것이다(마18의 규정).
19-20절: 말과 권능은 서로 다르다. 우쭐대는 자들은 말을 잘하는데 파워가 없다.
21절: 징계를 받기 전에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5,6장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나온다.

사랑 침례 교회 징계 규정:

제6항 - 회원의 징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각종 세상의 악과 영적 누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원의 징계를 실시한다.

- (가) 회원 간의 개인적인 문제는 징계 위원회의 공개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최대한 당사자들 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해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 (나) 교회 내에서의 규율과 선도를 위해 필요시 목사와 집사회로 구성되는 징계 위원회를 둔다.
- (다) 징계 위원회는 본 헌법에 명시된 조항들에서 벗어난 회원의 이단적인 교리와 언행, 위법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회중으로부터 부여받는다.
- (라) 회원과 회원 간의 문제를 공적으로 다룰 때나 회중과 교회 지도자들 간의 문제를 다룰 때는 공히 성경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하여 징계하되 징계를 위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대상자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목적으로 겸손과 사랑의 영으로 징계한다. 특히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떠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이단 교리를 가진 자는 엄격히 징계한다.
- (마) 회원의 규율과 징계에 관하여 회중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정규활동회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고린도전서 강해 맴

고린도전서 5장

교회의 징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사람이 다 불완전하므로 그대로 두는 것은 악한 일이다. 고린도 교회가 이 지경, 부모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아이들을 그대로 두면 아이들을 망친다. 그러므로 경찰의 심정이 아니라 애통하는 형제/자매의 심정으로 징계해야 한다(마18:15-17). 교회가 하려 하지 않기에 바울이 떨리서 하였다.

I. 판단하지 말라(고전4:5)와 판단하라(5장 3-5절)를 잘 이해해야 한다.

A. 판단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1. 판단하지 말라(마7:1-2; 고전4:5; 롬14:13)
2. 판단하라(고전2:15; 5:12; 6:2)
3. 많은 목사들은 마태복음 7장을 인용하면서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한다.
4. 마태복음의 판단: 영적인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말한다. 즉 우리가 사람의 의견이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판단하면 실수를 범할 수 없다.
6. 판단할 때에는 지혜롭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판단을 받기 때문이다(고전3:10-16).

B.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판단, 구별, 거룩함).

1.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면 우리는 항상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틀릴 수가 없다.
2. 교회 안에 부정한 일이 있을 때에 이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크리스천의 의무이다.
3.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해야 할 때에는 의롭게 판단해야 한다.
4.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종’ 운운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결코 맞지 않는다.
5. 신약시대에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종이다(요일2:20; 2:27)
6.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이요 고린도전서 등은 사도 바울의 말이니 이렇게 대치되는 구절이 나오면 예수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7. 딤후3:16-17; 벧후1:20-21
8. 딤후2:15

C. 바른 구원, 교리, 교회, 보상 등 모두 판단에 달려 있다(히11:24-26).

II. 음행의 심각성과 징계의 필요

A. 5장은 음행으로 시작했고 바울은 6장 초반부에 법정 고소를 이야기하다 다시 음행으로 간다. 그 정도로 여기의 음행은 바울을 화나게 하였고 나쁜 일이었다.

B. 교회의 어느 지체가 심각한 죄를 지을 때 “이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C.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죄가 있을 수 있다(엡5:3-4, 18; 골3:5-9).

1-2절: 근친상간(레18:6-8; 20:11), 불신자도 하지 않는 행위, 여인은 불신자인 것으로 보임, 죽은 자를 위해 하듯 슬퍼해야 한다. 성도들이 울어야 할 때가 있다. 타락한 이들을 도와야 할 때가 있다(갈6:1-2).

3-5절: 다른 성도들의 동기나(마7:1-5) 사역(고전4:5)에 대해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판단해야 한다. 징계하는 일은 기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필요할 때 해야 한다. 외부로 드러난 죄는 교회의 공적 회의에서 드러나게 다루어야 한다. 불신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바울은 범죄자를 거칠게 다룬다(5:2; 5; 7; 13).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4). ‘이름’은 권위를 뜻한다. 교회 회원권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구원의 상실을 뜻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요일5:5:16-17; 고전5:5; 고전11:28-30; 딤후

1:19-20; 딤후2:16-17; 요삼9-10): 고라와 그 무리들(민16), 나답과 아비후(민3:4), 아나니아와 삽비라(행5장), 바울이나 교회가 구원을 주고 뺏을 수 없다. 마귀는 쉽게 그의 몸을 공격할 수 있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죽는 죽음이 아니다(민16:29-30).

6-8절: 유월절과 무교절, 어린양의 피, 누룩 제거(출12:15), 누룩은 작는데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소량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그래서 교회는 녹은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음담패설, 헛소문, 비방).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9-13절: 교회는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자. 그들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신다(13절). 성도들은 세상과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야 한다. 불신자들을 만나는 것은 피하지 못하나 그들의 죄는 피해야 한다.

교회의 징계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 죄지은 성도를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후2:1-11).

고린도전서 강해 ㄷ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 교회는 간증을 잃고 있었다. 외부인들도 음행 문제, 법정 고소 문제를 알고 있었다.

1절: 심지어 불신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취급하였다.

2절: 교회의 위치 망각,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불신 세상을 판단하는 데 참여한다.

3절: 심지어 천사들도 판단한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벧후1), 타락한 천사들(벧후 2:4; 유6; 마25:41). 천년왕국 이후의 흰 왕좌 심판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한다(계20:7-10).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 선물들을 자랑하면서도 형제를 법정에 고소하였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 판단이 나온다.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4-6절: 냉소적인 말, 7절: 이런 소송을 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실패하였다. 주님의 말씀(마5:39-42) 차라리 빼앗기고 말라.

8절: 너희가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목사의 횡령, 간음, 건물 사유화, 부당 세습 등

9-10절: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 상속은 아들에게만 준다(요1:12).

여성화된 남자와 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는 동성연애자들(롬1:26-27).

의미: 이런 데 파묻혀서 사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죄들 중 어떤 죄를 짓는 이들이 있다. 예를 들어 도둑질 하는 자, 욕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고전 5장의 음행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아들로 성도로 보신다. 이것을 남용하면 징계를 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전5장의 음행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전적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들이다. (1) 고전15:50, (2) 갈5:19-21, (3) 엡5:5-7, (4) 고전6:9-10, 요약(롬 1:29-32), 계22:15 설명,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본성에 속한 자들(고전2:14)

11절: 과거에는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다(벧전4:3).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죄에서 벗어났다(롬 8:1-6).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상태는 분리되어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다. 아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2-14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14절). 우리 몸이 이처럼 중요하므로 악한 데 쓰면 안 된다.

고린도 사람들의 주장: (1)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지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된다(롬6:1-2). (2) 음식은 배를 위해 존재하듯 몸은 섹스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음행은 문제가 안 된다. 음행은 쾌락을 줄 수 있으나 은행을 터는 것과 같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언젠가 물어주어야 한다. 음행도 마찬가지다. 고린도에는 신전 창녀들이 많이 있었다.

어떤 권능 아래에도 놓이면 안 된다: 술, 담배, 마약, 섹스

15-18절: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member)이다(고전12:12).

바울은 창2:24를 인용한다.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하면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심각하다. 음행 죄는 자기 몸을 향해 짓는 심각한 죄이다. 창녀와 결합하는 것은 결혼은 아니다. 거기에는 약속(commitment)이 없다. 결혼 안에서의 섹스만이 부부를 성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기쁨이 된다.

19-20절: 아버지는 몸을 만들고 아들은 몸을 구속하고 성령님은 몸 안에 거하신다.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너희)가 성령님의 전이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교회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한다.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함을 완전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후7:1). 자라야 한다(벧후 3:18).

고린도전서 강해 10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결혼(7장), 우상의 음식(8장), 주의 만찬, 영적 선물(은사, 12장), 타언어(방언, 14장), 부활(15장), 유대인들을 위한 모금(16장) 등에 대해 물었으므로 바울은 7장부터 이에 대한 답을 준다.

6장의 종결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 음행을 피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한다. 7장은 주로 결혼 문제, 바울은 명쾌하게 답을 준다.

여기서 조심할 것: 바울의 대답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네로가 황제가 되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 함(26절, 29-31절). 재림의 임박성, 그 결과 독신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함. 그러나 바울은 결코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다(딤후4:1-4; 5:14; 히13:4). 일단 성경 전체 조명: 사람은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결혼해야 한다(창1:26-28; 2:18). 또한 7:6, 10, 12, 25절을 근거로 권위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말한 적이 없는 것들에 대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답변하였을 뿐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독신이다. 그러면 그는 결혼한 적이 있을까? 결혼한 적이 없다면 대답이 추상적 버는 맥기 박사의 주장: 하나님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써서 중요한 문제를 답하게 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7절에 근거해서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러나 8절을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르다. 여기에는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이 있다.

행26장의 산헤드린 회의, 바울은 여기서의 멤버였을 가능성이 높다. 멤버가 되려면 결혼해야만 한다. 유대인 청년들은 18세까지 결혼할 것을 종용받았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어른이 아니다.”

고전9:5, 엡5:25의 표현

여러 주석가들이 결혼과 사랑에 대한 그의 글들을 볼 때 그가 결혼했으나 아내가 일찍 죽었고 그는 다시 장가가지 않은 것으로 봄.

1-2절: 손을 댄다는 것은 육체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함.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수성과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전이 있었다. 섹스가 종교 그 자체였다. 1,000여 명의 신전 창녀들, 그리스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행17:18)

로마 시대의 아내는 남편의 재산(노예), 여러 아내를 둔 자들도 많았다(가사, 자녀 교육, 수종드는 여인 등). 이런 시절에 바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여자의 위치를 정상으로 높임.

하나님의 여자 창조, 합당한 조력자, 파트너(창2:18, 20)

음행을 피하라: 일부다처, 동성애 포함

모두 독신으로 지내면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3절: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성적인 애정)을 베풀어야 함, 여자도 마찬가지로 즉 남자가 욕정을 채우기 위해 신전으로 달려가면 안 됨.

4절: 결혼한 부부의 몸은 상대방이 주관한다.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아이를 낳기 위해서만 성생활을 한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5절: 부부 생활하면서 각 방 쓰지 말라. 영적인 활동을 위해 잠시 별거하는 것은 괜찮지만 오랫동안 각 방을 쓰면 안 된다(출19:15). 마귀가 틈을 탄다.

6절: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허락을 받아 쓴다.

7절: 바울은 지금 독신 상태, 자기와 같기를 원하였다. 그럼에도 사람마다 고유한 선물이 있다. 독신은 명령이 아니라 허용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마19:12). 초기 기독교에는 결혼을 영적 방해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독신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영적이다. No! 중세에는 독신, 빈곤 등을 강조하는 수도사들이 있었다. No good.

- 8-9절: 다시 한번 독신 언급. 1절의 원리 반복, 그럼에도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해라.
- 10-24절: 결혼 자들에게 주는 권고
- 10-11절: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떠나지 말라(별거). 하나님의 명령(마19:1-9), 떠나는 경우도 결혼하지 말고 지내고 다시 화합하라. 크리스천의 이혼은 맨 마지막 방편, 부부가 주님께 순종하며 부부생활에 문제가 없다. 이혼은 변호사만 도와준다.
- 12-13절: 바울의 선포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는 남편만 혹은 아내만 구원받은 경우가 있었다. 부부 중 한 명만 구원받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 구원은 결혼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알면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불순종이다(고전7:39; 고후6:14).
- 14절: 오해하면 안 된다.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는 믿는 배우자에 의해 거룩히 구분된다. 아이들도 그렇다.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결혼 상태를 용인해 주신다는 것이다. 불신자들끼리의 결혼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불법의 자식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부모 중 하나가 믿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 15절: 불신 배우자가 떠나는 경우, 떠나도록 두라. 그러나 그 뒤에 결혼해도 좋다는 말은 없다. 다만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신다. 떠난 상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간음이 되므로 이혼 사유가 성립된다.

고린도전서 강해 11

고린도전서 7장

- 15절: 불신 배우자가 떠나는 경우, 떠나도록 두라. 그러나 그 뒤에 결혼해도 좋다는 말은 없다. 다만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신다. 떠난 상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간음이 되므로 이혼 사유가 성립된다. 이혼 사유: 폭력과 폭언
- 16절: 믿는 남편과 아내의 목표, 17절: 모든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 그대로 거하라. 특히 결혼 후 구원받았으면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살라.
- 18-20절: 구체적인 예, 유대인 이슈, 유대인이면 이방인이 되려 하지 말고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되려 하지 말라. 부르심을 받을 때 거하던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라. 초기 이방인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지금 할례를 거론하고 있다(창17:9-14; 행15). 게바 파(고전1:12), 19절은 갈5:6과 매칭,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사업해라. 목사하려 하지 말고.
- 21-22절: 사회적 이슈, 노예와 자유인, 그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엡6:5-9), 로마 제국에서는 오직 교회에서만 성도들 간에 이런 평등이 존재하였다(갈3:28). 그런데 오해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 나중에(62년경) 기록한 빌레몬서, 오네시모와 빌레몬(로마 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예: 부인들은 1차 책무가 가사를 돌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사를 멀리하고 성경교사가 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
- 23절: 값을 치르고 사셨다(벧전1:18-19),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 교회의 여러 파의 리더들 각테일 웨이터, “그만 들까요?” “당신이 정해라.”, 특히 교회에서 목사의 종이 되지 말라.
- 24절: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그게 안 되면 나와야 한다(요셉의 사례).
- 25-20절: 결혼 적령기의 처녀들에 대한 권고, 고린도라는 음탕한 도시의 처녀들의 결혼 문제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하다.
- 25절: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재판관으로 조언을 준다(딤후1:13, 16). 6장 초반부에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함. 그의 말은 여전히 영감 받은 말이다(딤후3:16).
- 26-27절: 현재의 고난은 그 당시의 심각한 정치 경제 사정(31절), 그대로 지내라. 결혼에 대한 진리도 중요하지만 때도 중요하다(마24:19). 너로의 폭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생을 함.
- 28절: 장가를 가도 좋고 시집을 가도 좋다. 다만 육신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 29-30절: 현재의 고통과 관련된 다른 것들 5개를 이야기 함(결혼, 슬픔, 기쁨, 소유, 세상과의 관계), 고통이 심하므로 결혼한 자들은 하지 않은 것처럼 지내라(어쩌면 떨어져서). 때가 단축되었다(재림의 임박성, 살전4, 살후2, 3).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지 말라.
- 31절: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아끼되 탐닉하지는 말라.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히11:8-9, 13). 외형은 fashion
- 32-33절: 다시 결혼으로 돌아간다. 결혼한 자들과 하지 않은 자들은 차이가 있다. 하지 않은 자들이 더 주님을 생각한다. 그러나 결혼이 나쁜 것은 아니다. 결혼하려면 성숙해야 한다. 나이가 아니라 성숙이다. 그래야 이 세상 염려를 이길 수 있다.
- 34-35절: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 말한다.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을 잊지 말라.
- 36-38절: 시집가지 않은 처녀 딸들에 대한 권고
- 36절: 그 당시는 딸의 결혼이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았다.
- 38절: 역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 39절: 아내에 대한 규제(신24:1-4; 레22:13; 민30:9; 롬7:2)
- 39b-40절: 과부에 대한 규정, 그대로 지내라. 재혼하려면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해라. 나처럼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다(바울이 결혼했음을 보여 줌). 그럼에도 강요하지는 않는다. 결혼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잘 설명해 줌.

고린도전서 강해 1권

고린도전서 8장

고대 이방인 세계에는 두 종류의 고기가 있었다. 보통 시장에서 파는 비싼 고기, 신전에서 희생물로 사용한 싼 고기(제사장의 몫), 후자를 먹어도 되는가? 또한 초대받는 경우도 두 가지: 우상의 전에 혹은 집에, 이 경우에도 제물로 쓰인 고기가 있었다(8:10; 10:20-21).

강한 성도들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우상에게서 막 돌아온 약한 성도들은 이것이 큰 문제였다. 로마서 14-15장의 음식 문제, 날, 문제 등

바울은 지식이 있는 자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원받으면 지식이 생긴다(시119:130).

지식은 사랑과 균형을 가져야 한다.

1-2절: 고린도 성도들은 지식에 풍성하였고(고전1:5) 어느 정도 그것을 자랑하였다. 나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 지식의 급증이 우쭐대게 만든다.

지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두운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짓 신(혹은 마귀들 10:20-21)을 나타낼 뿐이다. 그러므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은 음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 아이보고 어두운 데는 무섭지 않다고 해 봐야 어떤 경우는 소용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강한 자들이 우쭐대면 문제가 생긴다. 고린도 성도들의 파당 문제, 음행 문제도 우쭐대는 데서 생김(4:18-19; 5:2)

바울의 말: 안다고 하는 자는 사실 모르는 자이다. 교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지식이 자라는데도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라지 않을 수 있다(벧후3:18).

사실 이런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8:7).

1절의 사랑은 charity(고전13:4-5)

3절: 사랑과 지식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엡4:15). “사랑이 없는 지식은 짐승과 같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다.” 지식을 가진 자들이 사랑으로 지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워 줄 수 없다.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아신다는 것은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다(마7:23).

4절: 다른 신이 없다(막12:28-34; 신6:4-5).

5-6절: 엡4:3-6, 엡6:12; 행17:22-31, 요1:1-3

7절: 모두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약한 자들이 피해를 본다(11-13절). ‘우상을 의식한다’는 말은 우상 신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이다. 요약(롬14:23)

7-13절의 양심, 신약에 31회,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여 승인하거나 정죄함(롬2:14-15)

양심은 율법과는 다르며 하나님의 도덕법을 드러낸다.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양심은 강해진다.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 없으므로 양심이 아직 약하다. 베이비와 같다(고전3:1-4; 히 5:11-14).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학교 갈 나이의 아이가 가려고 하지 않는다. 부모가 매일 데려다 주어야 한다.

약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쉽게 더러워지고(8:7), 상하고(8:12), 실족한다(8:13). 그래서 강한 자들이 참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극장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한 그리스도인에게에는 문제가 된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따라하다가 실족할 수 있다(8:10-11).

8절: 고린도 성도들 혹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 자들의 주장: “음식은 별 것 아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입장 표명이 9-13절에 있다.

9절: 8절이 사실이라도 조심해라. 걸림돌(롬14:13), 유대인을 만나면 돼지고기는 시키지 말라(고전 10:29).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게 되면 큰일이다.

10절: 그것이 옳은 줄로 착각하게 된다(고전10:27-28).

11절: 약한 형제가 죄를 짓게 된다.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다.

12절: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므로, 술담배 문제도 비슷하다.

13절: 우리는 다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약한 이들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도록 작심해야 한다.

음식에 대한 입장 정리

a. 초식(창1:29-30), 육식 허용(창9:3-6)

b.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레11:7, 9절 등)

c. 초대 교회의 음식 문제(행15:29)

d. 롬14:1-3, 14-21

e. 딤후4:1-5, 골2:16, 20-23

f. 초식의 복원: 천년왕국(사11:6-9)

고린도전서 강해 13

고린도전서 9장

8장의 음식 문제에서 갑자기 바울의 사례비 문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여 주는 실례(약한 자를 위해 강한 자가 참는 사례), 우상의 음식을 먹는 자가 참아야 한다.

직업에 대한 관념: 그리스 사람들은 노동하는 것을 싫어하였다(노예). 유대인들은 랍비라 해도 직업을 갖는 것을 강하게 권면하였다. 그래서 그는 천막을 만들었다.

바울은 먼저 자기가 사례비를 받아도 됨을 변호함(1-14절)

1. 사도직(1-6): 사도는 위임을 받아 보내어진 자, 12사도 및 바울, 신약의 사도들은 대언자들과 함께 교회의 기초를 놓음(엡2:20). 사도의 조건: 개인적으로 주님을 보아야 함(행1:21-22). 바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행9:1-9). 사도들은 특별 선물(은사)을 받아 기적도 행함(히2:4; 고후12:12).

- a.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직의 봉인이다: 고린도는 목회하기가 대단히 힘든 곳, 그러나 그는 여기서 큰 변화를 일으킴(행18:1-17).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서 자유롭게 사례비를 받을 수 있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다(4).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다(5). 일을 안 하고 전적으로 사역해도 될 권리가 있었다(6). 그럼에도 그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다(3): 사도직, 행동, 동기
- b. 바울은 아내를 자매라고 한다. 아담과 이브는 한 아버지가 있었음. 그래서 크리스천 남편과 아내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다.
- c. 다른 사도들은 결혼하였다: 베드로도

2. 사람의 경험(7): 일꾼은 품삯을 받고 일한다. 교회는 전쟁터(군사, 딤후2:3-4), 포도원(농부, 딤후2:6), 양들(목자, 벰전5:1-4)

3. 구약의 사례(8-12): 아직 신약이 없었다. 신25:4(딤후5:17-18), 이것은 단지 소나 소 주인을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다. 짐승 선대(잠12:10). 영적 원리가 있다. 소가 쟁기질하듯이 바울은 고린도를 쟁기질하였다. 그리고 수확을 보았다. 그러므로 수확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 a. 쟁기질: 불신자, 타작: 신자
- b. 고전9:11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방인 교회(롬15:25-27), 사역자들 지원(갈6:6-10)
- c. 사실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서 지원을 받았다(빌4:15-16; 고후11:8). 다른 사역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다(12절). 그러나 바울은 좋은 예가 되기 위하여 받지 않았다(살후3:6-9).

4. 구약의 예(13):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민18:8-32; 레6:14-7:36 등)

5. 주님의 가르침(14): 눅10:7-8, 마10:10

바울은 자기가 사례비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변호함(15-27절)

여기서 바울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 참아야 함을 실제로 보여 줌

음식물은 교회를 세우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즉 우선권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마6:33).

1. 복음을 위하여(15-18): 그 당시 고린도에는 순회하는 복음 선포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말을 잘하였다(고전2:1-5). 그러나 바울은 단순한 복음을 선포하고 사례비도 받지 않았다.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와달라고 편지도 쓰지 않음(15). 차라리 죽는 게 낫다.

- a. 자기는 복음 선포를 할 자격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16절). 고전4:2의 정신으로
- b. 바울의 보상은 사례비 없이 기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 c. 17절의 정신(벰전5:2), 분배 사역(dispensation)은 청지기직, 복음 사역에 너무 돈을 강조하면 문제가 생긴다(딤후6:3-16). 돈을 밝히는 사역자로 드러나면 부끄럽다: 아니니야와 삽비라(행5), 시몬(행8:18-24).
- d. 아이언사이드 목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넘치도록 드리십시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드리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죄인들을 위해(19-23):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이 종이 됨(고후4:5), 22절의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를 잘못 사용하는 자들이 많다. 바울은 결코 타협하는 메시지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음악, 예배, 말씀 선포 등). 바울은 자기 백성을 향해 큰 부담을 가진 유대인이었다. 가는 데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함. 그럼에도 그는 이방인들의 사역자(엡3:8)
 - a.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율법과 언약들(엡2:11-15),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살았다. 즉 유대인들 앞에서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다.
 - b.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때 구약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함(행13).
 - c. 이방인들에게 선포할 때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함(행17)
 - d.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는 영적 출생(요3), 수가의 여인에게는 영원한 물(요4), 즉 상대방의 필요를 맞추려고 노력함
 - e. 디모데는 할례를 줌(행16:1-3), 디도는 안 줌(갈2:1-3)
 - f. 바울은 유대인들과 음식 문제로 다투지 않았다. 율법을 존중하였으나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즉 그는 항상 사랑의 법에 자신을 내어 맡겼다.
 - g. 베드로(갈2:14)
 - h. 그럼에도 그는 무법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에 매인 자다(21).
 - I. 약한 자를 살피주었다(22).
3. 자기를 위해(24-27): 바울은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함(빌3:13-14; 히12:1-2). 운동 선수는 이기려면 참아야 한다. 음식, 재미 등이 다 중요하지만 참아야 이길 수 있다.
 - a. 그래서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하였다. 권리는 훈련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주님을 섬겨 보상을 받으려면 값을 치러야 한다(25).
 - b. 목표가 있어야 한다(26, 빌3:14).
 - c. 27절의 버림받는 것은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서 상 받을 자격을 잃는 것을 뜻한다(달리기 하다가 레인 터치 실격, 권총보다 앞서가는 것 등).
 - d. 실로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다.
 - e. 즉 영원한 보상과 기쁨을 위해 즉각적인 이득과 즐거움을 희생하였다.
 - f. 당신은 이기기 위해 달리는가?
 - g. 27절은 개역처럼 내 몸을 쳐서가 아니다

종합정리:

1. 목사는 사례비를 받아야 하는가?
2.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이 되는 것의 의미
3.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참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강해 14

고린도전서 10장

고전8:9 강한 자의 자유가 약한 자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9장 바울의 사례비 예

10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이 구약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강조함, 12절이 핵심임

- 1절: 우리 조상들,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대다수였다(행18:7-8). 구약 시대의 이집트 탈출 시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다(고전5:7-8 참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출40:34)
- 2절: 이들은 다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모세와 동일시되었다. 혹은 모세 시대에 속하게 되었다(출14:31; 요1:17, 비교 행19:3). 출14:21-22, 29-30,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은 뒤 바다 속으로 들어감. 이때 사실 이스라엘은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경험함(롬6:3-5). 구원 받은 자들은 물에서 나왔지만 파라오를 따른 자들은 물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성령 침례와 불 침례). 바울은 여기서 그들이 실제 침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고 영적인 의미의 침례를 받았음을 말함.
- 3-4절: 이들은 만나와 물을 마셨는데 이것들은 예표로서 실체는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만나와 그리스도 대비 요6:31-32, 33-35, 요6:49, 50-51). 생수(요4:14), 출애굽기의 반석(출17:6; 민20:8-13), 첫째 사례, 반석을 막대기로 내려침, 둘째 사례 말하라고 하는데 내려침
 - a. 반석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그리스도는 한 번 맞아야지 두 번 맞으면 안 된다. 즉 한 번 죽으셔야 한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는 종교는 틀린 것이다(천주교의 미사).
 - b. 달리 말하면 성도는 구원받을 때 온 몸이 깨끗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발만 씻는다(요13:10).
- 5절: 이집트에서 나온 첫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민13장 가데스바네아의 정탐꾼들, 민14:26-35, 히3:15-19).
- 6절: 11절과 비교, 구약의 사례들은 우리 이방인들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롬15:4). 그러므로 구약을 읽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탐욕(민11:4-5), 메추라기 31-34, 우리의 탐욕
- 7절: 우상 숭배(출32:1-6),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
- 8절: 음행(민25:1-9), 하루에 23,000, 전체는 24,000명(9절), 음행의 도시
- 9절: 불 뱀(민21:6-9), 만나가 먹기 싫다. 만나는 사실 그리스도의 예표, 믿음이 시들해짐
- 10절: 파멸시키는 자(천사), 출12:23; 삼하24:16,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하는 특징이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 우리들의 특징
- 11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기록됨(롬15:4). 그래서 구약을 읽어야 함(빌4:5 참조).
- 12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지식 안에 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들이 조심해야 한다. 여기의 넘어지다는 결코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탈출 이후의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보상을 놓쳤다.
- 13절: 개역: 사람이 [공통적으로]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 a. 우리는 사람이기에 모두 공통적인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 b. 사람은 시험은 크게 세 가지(요일2:16; 창3:6; 마4:1-11)
 - c. 남자들의 공통 시험: 남을 비난하는 것, 결국 살인을 부를 수 있다(가인)
 - d. 여자들의 공통 시험: 입을 열어 말하는 것
 - e.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살전5:24; 살후3; 요일1:9)
 - f. 피할 길(렘29:10-11; 벴후2:9), 야곱의 경우(창42:36), 요셉의 경우(창50:20)
 - g. 시험을 피하기 위한 첫 단계: 가능한 한 죄에서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단1:8). 둘째 단계: 말씀을 기억하라(시119:9,11). 셋째 단계: 우리는 죽은 것으로 여겨라(롬6:11; 골3:5), 넷째 단계: 마귀에게 저항하라(약4:7).

고린도전서 강해 15

고린도전서 10장

- 14절: '그런즉'은 앞의 사례들을 보았으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구약성도들의 실패를 보았으므로
우상숭배를 피하라. 사도는 원래 8장에서 우상의 제물 이야기를 하다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이야기를
하였고 구약의 사례들을 통해 경고를 주면서 결국 8장을 마무리한다.
피한다는 도망친다는 말이다. 음행을 피하라(고전6:18). 청년의 정욕(딤후2:22), 탐욕(딤후6:11)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귀가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다(신32:17; 시
106:37). 바울은 죄로부터의 분리를 강하게 가르치고 있다(고후6:14-7:1).
- 15절: 잘 이해하고 판단하면서 들어라.
- 16-17절: 주의 만찬을 예로 들고 있다. 성도가 빵과 포도즙에 참여하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다. 마귀의 상에 참여하는 것도 같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11장 23-34절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임. 16절은 천주교 미사의 핵심,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진짜 피와 살을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사를 하면 고전11:29의 저주가 임한다. 17절의 한 몸은 그리스도의 죽음 몸이 아니라 우리를
말한다. 사실 빵을 떼는 것은 성도의 교제이기도 한다.
- 18절: 과거의 이스라엘은 제단에 참여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희생물의 일부는 바치는
자가, 일부는 제사장이 먹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면 그들의 예배에 참여하는 꼴이다.
- 19절: 그러면 내가 우상이 실재라고 말하는 것이냐? 바울의 이전 말(고전8:4)과 모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데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20절: 우상 자체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을 통해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바치고 교제한다. 무당의 굿
개역,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흠정역: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형제/자매님들의 제사 문제: 비용, 음식 다 해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는 말라.
- 21절: 믿는 사람이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다.
- 22절: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출20:5)
- 23절: 고전6:12 반복, 23-24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리'이다.
- 24절: 롬15:1-2; 고전13:5, 바울의 실례(고전10:33)
- 25절: 아예 묻지도 말라. 양심을 위해.
- 26절: 시24:1,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시50:10; 딤후4:3-5).
- 27절: 25절과 같은 맥락, 27-28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하는 살례를 말한다.
- 28절: 개역성경 등은 28의 후반부를 없앴다. 서기관의 실수라고. 아니다. "꼭 그것만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른 것도 많이 있다."
- 29절: 뒷부분은 고린도 성도들의 반문
- 30절: 마찬가지로
- 31절: 바울의 대답, 하나님의 영광(벧전4:11)
- 32절: 실족거리(바울의 경우 행24:16), 세 부류의 사람들, 딤후2:15
- 33절: 바울의 실례

고린도전서 강해 16

고린도전서 11장

1절: 바울의 롤 모델(딤후1:15-16), 균형(벧전1:24), 심지어 사례비까지 받지 않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바울: 자유와 진리 사랑, 진보했다. 참았다(빌3:1-11).

그리스도의 예: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롬15:3; 빌2:4-5; 히12:1-2)

2절: 칭찬, 규례들, 바울들이 그들에게 전달해 준 규칙들, 좋은 전통들, 골2:20의 규례들은 구약의 규례들, 벧전2:13의 규례들은 명령들, 여기서는 아마도 행15:28-31을 가리키는 듯함. 바울의 복음 정의(고전15:1-4), 죽음, 매장, 부활, 주의 만찬과 침례는 이것들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질서가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질서의 문제가 있었다. 자매들의 자유가 도를 넘었다. 주의 만찬의 문제, 영적 은사의 문제, 로마 제국에서는 유일하게 교회만 남녀노소, 종/주인 등의 차별이 없었다. 새로운 운동은 대개 반대자들이 아니라 추종자들에 의해 옹호되곤 한다. 주의 만찬 설명 전에 질서 문제 다룸

3-16절은 교회에서 여자들의 위치에 대해 가르쳐 준다.

3절: 교회에는 질서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머리: 구속 사역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였다(요8:29; 10:30; 14:28; 빌2).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전3:21-23; 갈3:28; 엡5:21-33). 이것은 가정과 교회에서의 질서이다. 그러나 전 세상의 질서는 아니다.

4절: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상사가 오면 모자 등을 벗고 존경심을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남자는 머리를 덮으면 안 된다. 7절에도 이유가 있다. 즉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머리에 무엇을 덮으면 그리스도가 가린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는 것과 정반대. 유대인들은 지금도 조그만 둥근 모자로 머리를 덮는다. 여기의 덮는 것은 머리 전체를 덮는 형겔(베일) 혹은 긴 머리를 뜻함

5절: 구약시대에는 여대언자가 가끔씩 있었다. 미리암(출15:20), 드보라(삿4:4), 홀다(왕하22:14), 안나(눅2:36) 등

a. 바울은 공예배에서 여인들이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4-5). 여기의 대언은 직통 계시를 뜻한다. 성경의 완성 이전이므로 이런 일이 가능하였다(빌립의 네 딸 행21:8-9). 그럼에도 공적 사역을 하는 여자들은 없었다: 여자 목사(장로, 감독)는 허용되지 않았다(딤후3:2). 아마도 공적 예배에서 특정한 여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허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딤후2:11-15). 또는 다른 대언자들의 메시지를 판단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고전14:27-35). 현 시대에도 이런 여인들이 있는가? 초대 교회 후반부로 가면서 이런 여인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 고린도 신전의 여사제들은 남자들처럼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깎든지 밀었다(여승들처럼). 그러므로 여자들은 그들과 같은 모습을 하면 안 된다.

6절: 5절의 원리 다시 강조함

남자와 여자는 짧은 머리와 긴 머리로 머리에 대한 존경심을 표해야 한다.

남자는 덮으면 안 된다. 여자는 덮어야 한다.

7절: 믿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머리를 덮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 유대인들은 대개 모자를 썼다. 이슬람 사람들을 터번을 썼다.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에 나타나지 말라. 구원받은 남자는 더 이상 아담의 형상 속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고후4:4; 히1:3) 안에 있는 의인이다.

a. 반면에 여자는 남자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로 지어졌으므로 공적으로 남자에게 복종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덮음으로써 절제하며 조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남자가 영광을

받는다.

8-9절: 창조 이야기(창2:18, 22-23), 남자가 먼저, 여자가 나중,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어졌다.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평등하다.

10절: 여자들은 머리에 권능을 두어야 한다. 권능은 5절의 덮는 것이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 그러므로 여자는 복종하는 존재임을 보이기 위해 머리를 덮어야 한다. 유대교에서는 여자들이 대개 수에 들지도 못하였다. 회당을 세우려면 남자 10명이 있어야 했다(여자의 수와 상관없이). 헌신된 유대교 남자들은 자기 여자가 아닌 사실을 대단히 크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교회로 오니 여자들이 심지어 기도도 하고 대언도 하게 되었다. 놀랄 일이다.

a. 왜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가? 사실 마귀는 여자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 하였다. 이 모든 일을 천사들이 보았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지 보고 있다(엡3:10; 벰전1:12). 공예배에는 천사들(단4:17의 watcher)도 증인들로 존재한다. 여자의 불순종을 보면서 천사들은 또한 과거의 불순종(창세 이전 혹은 창6장)을 생각한다. 또는 과거에 창6장에서처럼 여자와 관계를 맺었던 일을 생각한다.

11-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평등한 존재이며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13-14절: 바울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도 다시 남자와 여자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본성을 살펴보라. 어느 문화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머리 길이가 다르다. 어느 정도 달라야 하는가? 남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은 것은 성정에 위배된다. 어느 정도가 긴 머리인가? 목을 덮을 정도면 긴 머리이다.

a.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수치이다. 히피는 큰 수치이다(마약, 술 등). 구약시대에도 나사르 사람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 머리를 하지 않았다. 이때의 긴 머리는 성별의 징표,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고 태웠다(민6:5; 18).

15절: 여자의 긴 머리는 그 자체가 덮는 것이다. 베일이나 모자를 쓸 필요가 없다. 천주교회나 형제교회의 너울 또는 침례교회의 모자는 불필요하다. 천주교의 너울, 루터, 칼빈, 나스, 헨리 등도 너울을 강력히 권하였다.³⁾ 형제교회의 다비(John Nelson Darby)는 성공회(Anglican church)에서 나오면서 이 전통을 그대로 유지함.



16절: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 있다 해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나 다른 이가 세운 하나님의 어떤 교회에도 그런 풍습 즉 여자가 덮지 않고 나타는 풍습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는 어떨까?

레19:26-27은 모든 유대인 남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
26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고 요술을 사용하지 말며 때를 관찰하지 말고

27 너희 머리 가를 등글게 깎지 말며 네 수염 끝을 훼손하지 말고

28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बे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27절을 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머리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머리를 길러야 했고 얼굴 모습을 가리기 위해 수염을 길러야 했다. 반대로 하는 것은 이집트의 산물(동그랗게 머리 중간을 파냄, 천체 숭배, 수염을 네모 낳게 자름), 이것이 곧 유대인 남자들이 긴 머리를 가진 증거일까?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머리는 길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3) http://en.wikipedia.org/wiki/Christian_headcovering

고린도전서 강해 17

고린도전서 11장

이기심이 가득한 애찬의 문제(17-22)

주의 만찬: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 후에 주의 만찬이 제정됨.

애찬은 초대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졌다(행2:42, 46). 교제하고 또 가난한 성도들과 음식을 나누는 기회, 애찬의 끝에 주의 만찬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애찬이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많았다(17; 유11-13). 우리는 어떤가?

파당이 있어서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나누었다(18-19). 고전1:10-16, 19절의 의미

특히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의미의 나눔이 없었다(20-22). 심지어 취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가난한 성도들의 자존심이 상하였다. '계란 던지기 게임'

주의 만찬(23-34)

교회에 주신 두 가지 규례: 침례와 주의 만찬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만찬을 대하는 태도이다.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이다.

부주의하게 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심지어 죽기도 하였다(고전11:30).

주의 만찬을 잘 지키면 성도들에게 복이 된다.

1. 첫째 뒤를 보아야 한다(23-26a): 그리스도의 죽음, 복음의 핵심(고전15:3-4). 그리스도의 교리나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구원한다. 직접 받았다(갈1:11-12).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다(사53:6; 벰전2:24).

그분은 자진하여 죽으셨다(롬5:8).

새 상속 유언(히9:16-17), 구약의 완성과 철폐, 새 역본들은 마26:28과 막14:24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New'를 제거함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교제한다.

빵과 포도즙은 상징이지 그것 자체가 은혜를 주지 않는다.

교회가 휴거되면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가면서 주의 만찬은 끝이 난다(계19:7).

2. 앞을 바라본다(26b). 주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한다(요일3:2). 천주교는 재림 설교 No!

3. 우리의 내부를 보아야 한다(27-28, 31-32). 우리는 합당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합당하게 참여한다. 우리를 살피고 죄들을 판단하고 주님께 고백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신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은 살피지 않고 남을 살피는 데 바빴다. 하나님의 징계는 오직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된다(히12:1-11).

4. 주변을 살피야 한다(33-34). 주의 만찬은 교회가 하나임을 보여 주는 계기, 주의 만찬은 특히 성도들의 사랑을 보여 주는 시간(요일4:11), 불신자는 안 됨, 신자라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됨. 그래서 만찬은 감사와 기대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주의 만찬 요약

1. 참여하는 것, 즉 교제하는 것이다(고전10:16-17). fellowship, 누가? 우리가

2. 주의 상이다(고전10:21).

3. 주의 만찬이다(고전11:20; 눅22:20)

4. 감사하는 것이다(마26:27). Eucharist

5. 빵을 나누는 것이다(마26:26; 행2:4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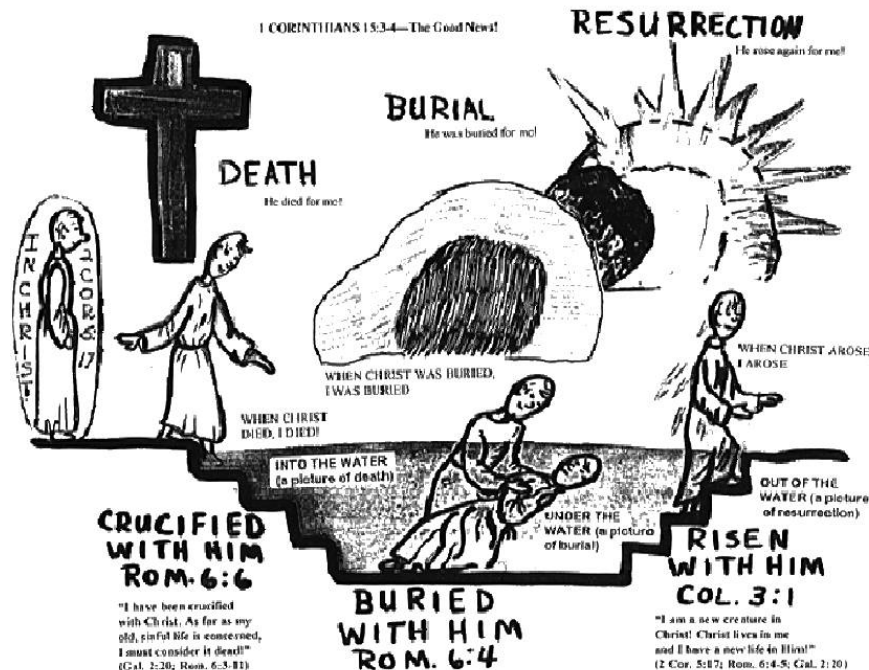
6.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다(고전11:24-25). 가장 중대하고 심오한 밤에 그분의 몸은 죄로 인한 희생물로 드려짐(벰전2:24; 3:18; 고후5:21).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 흘려짐(마26:28; 엡1:7; 계1:5)

7. 누가 참여하는가? 주의 만찬이므로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행2:41-44, 특히 44절), open communion, closed communion, 교회가 결정한다. 우리는 open 스타일이다. 침례도 마찬가지다. 본인의 믿음 고백, 주님의 명령
- 구원받았어야 한다.
 - 구원받았음을 알아야 한다: 구원의 확신((요일5:13)
 - 당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고전11:27-31).
 - 바른 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8.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 주님은 명시하지 않았다.
- 너무 자주할 때의 문제: 행사가 되어 의미를 잃을 수 있다. 형제 교회, 지방 교회 등의 만찬 예배, 천주교와 성공회에서 나오면서 미사 예식에서 이런 전통을 가져옴
 - 자주 하지 않을 때의 문제: 주의 만찬의 복을 잃는다.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어렵다(고전 11:25-26).
 - 우리는 3개월에 2번씩 하여 1년에 8번 한다. 더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교회를 비판할 필요가 없다.
9. 아이들의 참여는 가능한 한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다(27-29절). 천주교의 미사 문제

침례와 주의 만찬 비교

침례	주의 만찬
한 차례	여러 차례
성도가 되는 시점에	살아서 성도로 지내는 기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롬6:3-4)	주님과 교제하는 것(고전10:16)
십자가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음	십자가로 인해 내게 잇는 새 생명을 누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로서 걸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신분은 완벽함	성도로서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가 많음. 그래서 살펴보고 판단하고 그분 안에서 바른 교제를 나누려고 나를 씬 (고전11:28-32; 요일1:5-9)



고린도전서 강해 18

고린도전서 12장

0. 고전12-14는 영적 선물에 관한 내용(12:1-14:40)

사람이 성장하면 성숙해지고 몸에 관심을 갖게 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교회는 가족, 군대, 전, 신부이고 또 몸이다.

바울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몸에 대해 세 서신에서 언급한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몸을 출생시키고 그 이후에 그 안에서 일하신다.

하나 됨	다양함	성숙함
고전12:1-13	12:14-31	13:1-13
롬12:1-5	12:6-8	12:9-21
엡4:1-6	4:7-12	4:13-16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몸을 망치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들을 모르기를 원치 않았다(1절).

영적 선물은 많은 경우 표적과 관련이 있어서 파위를 동반하였다.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는 파위가 아니라 성품의 변화이다(갈5:22).

고린도 교회는 파위가 넘쳤으나 성품의 변화가 작은 육신적인 교회였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1. 몸의 하나 됨(고전12:1-11)

A. 우리는 같은 주(主)를 고백한다(1-3). 영적 선물로 인한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그들의 과거 모습(2절)을 말하고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3절).

1. 그들은 이방인들로서(엡2:11-12) 과거에 마귀들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다(고전10:20).

2. 무지와 욕정에 따라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간 자들(2절)

3. 이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3절; 요일4:2). 살전1장의 고백

4.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음, 구원받은 자는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5. 그리스도가 주님이면 교회에 일치가 있어야 한다(요17:20-21).

B.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의지한다(4-6).

1. 우리가 하는 일, 선물은 달라도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4):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빌2:13)

2. 섬기는 직무는 달라도 같은 주님(5)

3. 활동은 곧 일을 말한다. 같은 하나님(6)

4. 선물의 근원도 하나님, 선물을 사용하는 데 따른 힘도 하나님에게서 온다. 사람이 아니다. 서로 경쟁하지 말라.

C. 같은 몸을 섬긴다(7-11).

1.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진동, 울부짖는 것, 사자 소리 내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일의 표출(선물, 직무, 활동)

2. 선물은 개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몸을 섬기도록 주어졌다(7).

3. 성령님의 선물(8-10)은 고전12:8-10, 28, 롬12:6-8, 엡4:11 등에 있다(약 18개).

4.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주신다(11). 그러므로 자랑하면 안 된다. 낙심해도 안 된다.

D. 같은 침례를 받았다(12-13).

1. 이것은 성령 침례이다. 누구나 몸에 들어오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 침례는 구원받으면 자연히 주어진다. 구하는 것이 아니다. 방언이 성령침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30절 참조).

2. 롬8:14-16의 증언

3. 성령 충만은 늘 구해야 한다.
 4. 여기의 침례를 물 침례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된다(엡4:5).
- E. 영적 선물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엡4:4-8). 성령님은 각종 선물을 주신다(고전12:4).
1. 영적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도가 다시 태어날 때 주신 초자연적 능력 (supernatural ability)이다. 그리스어 charisma; charis에서 옴. 은혜 선물
 2. 영적 선물의 범위
 - a. 모든 성도는 최소한 하나의 선물이 있다(벧전4:10; 엡4:7; 고전7:7; 12:7; 12:11).
 - b. 모든 선물을 가진 성도는 하나도 없다(고전12:29-30).
 3. 영적 선물의 목적
 - a.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계4:11).
 - b. 교회를 세워 줌(엡4:12-13).
 4. 영적 선물의 오남용
 - a.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사용하지 않음(딤후1:6; 딤펢전4:14).
 - b.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선물을 사용하려 함(고전12-13).
 - c. 사랑 안에서 사용하지 않음(고전13:1).
 5. 영적 선물의 수: 롬12:6-8, 고전12:8-10, 28, 엡4:11를 보면 18개의 선물이 나와 있다.
 6. 영적 선물의 본질: 18개 선물은 교회 시대에 지속되는 '칭지기 선물'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표적 선물'로 나뉜다.
 - a. 표적 선물(사라지는 선물)
 - (1) 사도, (2) 대언, (3) 기적, (4) 병 고침, (5) 타언어(방언), (6) 방언 통역, (7) 지식(의 말씀)(*))
 - b. 칭지기 선물(지속되는 선물)
 - (1) 지혜(의 말씀), (2) 영 분별, (3) 주는 것, (4) 권면, (5) 섬김, (6) 긍휼을 베푸는 것, (7) 다스리는 것, (8) 믿음(*), (9) 가르치는 것, (10) 복음 선포자, (11) 목사 겸 교사
 - c. 영적 선물 자체가 기적의 요소를 품고 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인 AD 50-60년경에 직통 계시를 받은 대언자를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보임으로
 - (1) 예수님의 사역(요3:2; 마10:1, 7-8; 11:2-5; 요20:30-31)
 - (2) 바울의 사역(롬15:18; 고후12:12)
 - (3) 사도들의 사역(히2:4)
 - d. 처음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기적 선물들이 필요하였지만 성경이 완성되어 진리와 오류를 구분해 주면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 e. 성경 기록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보여 주었다(딤후3:16-17).

고린도전서 강해 19

고린도전서 12장

F. 7가지 표적 선물(사라지는 선물)

1. 사도(엡4:11; 고전12:28):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들, 교회의 초대 멤버, 사도는 '파송 받은 자', 제자는 '배우는 자', 그러므로 사도는 다 제자지만 제자는 다 사도가 아니다(요6:66-67).
 - a. 사도의 요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행1:22; 고전9:1).
 - b. 사도의 수: 원래의 열둘(눅6:13), 그러나 전체 수는 열둘 이상이다.
 - (1) 맛디야(행1:26), (2) 바울(롬1:1; 11:13; 고전9:1; 고후11:15; 12:12)
 - (3) 바나바(행14:14), (4) 주의 형제 야고보(고전15:7; 갈1:19)
2. 대언(롬12:6; 고전12:10; 14:1, 3-6; 엡4:11): 미래와 현재의 일 대언
 - a. 미래(고전15:51-55), foretell(미리 말함)
 - b. 현재(고전3:1-3), forthtell(밖으로 널리 알림): 현시대의 설교(설명, 권면, 위로, 책망 등), <The art of prophesying>
 - c. 성경 기록 자체가 대언이다(벧후1:20-21).
3. 기적(고전12:28): 초능력 발휘
 - a. 목적: 하나님의 권위 입증(요3:2; 20:30-31; 롬15:18; 고후12:12; 히2:4)
 - b. 성경 기적의 세 시대
 - (1)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약 25개 기적)
 - (2)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약 21개; 엘리야 7, 엘리사 14)
 - (3)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약 50개)
 - (4) 이 세 시대에는 기적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비윤리와 무관심과 타성을 꺾 수 없었다.
4. 병 고침(고전12:9, 28, 30): 정신적, 육적, 마귀적인 병을 고치는 초능력
 - a. 목적: 기적과 같다.
 - b. 병 고침 선물의 한계
 - (1) 예수님은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 주지 않았다(눅4:25-27).
 - (2) 바울은 병 고침에 제약이 있었다.
 - (a) 본인 자신(고후12:7-10), (b) 에바브로디도(빌2:26-27)
 - (c) 디모데(딤후4:23), (d) 드로비모(딤후4:20)
 - (3) 병 고침의 선물을 사라졌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병을 고치신다.
 - (4)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칠 수 있다. 조건은 하나님의 뜻이다(요일5:14).
5. 방언(타언어)(고전12:10): 방언만큼 논쟁에 뜨거운 주제도 많지 않다. 나중에 14장에서 의논함
6. 방언 통역(고전14:13, 27-32)
7. 지식(고전12:8):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이해가 부족한 것
 - a. 지식: 사실들을 모으는 초자연적인 능력, 지혜: 바르게 판단하여 이 사실들을 적용하는 것
☞ 고전13:8은 '무엇을 알아맞히는 지식 선물'이 있다는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 b. 현 시대에 지식의 은사를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자들: 특별 계시로 병을 진단하고 고치는 것
☞ 지식 선물이 언급된 5구절(고전12:8; 13:2, 8; 14:6; 고후8:7)은 지식 선물이 병 고침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 준다.
 - c.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한 구두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 d. 하나님의 인도로 신약 성경 기록을 받을 수 있는 능력
 - e. 이런 면에서 이 표적 선물 역시 AD 90년경에 사라졌다.

f. (*) 지식의 말씀(고전12:8)이라는 측면에서 이 선물은 지금도 있다고 보아도 된다.

G. 11가지 청지기 선물

1. 지혜(고전12:8)—성경에는 대개 4종류의 지혜가 언급된다.
 - a. 본성적 지혜: 가말리엘(행5:38-39)
 - b. 세상의 지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고전1:17-31 특히 고전1:17-21, 25)
 - c. 청지기 지혜: 영적 원리를 현 시대 문제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 선물이다.
 - d. 지식, 지혜와 더불어 명철이 있다. 명철은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냄, 마귀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명철이 없다(욥28:28). 그래서 명철은 늘 지혜와 함께 언급된다(잠4:7).
 - e. 지식의 말: 무엇을 말하는가? 지혜의 말: 언제 어떻게 말하는가?
2. 영 분별(고전12:10; 요일4:1): 마귀의 일과 성령님의 일 구분, 은사운동, 종교일치(WCC)
 - a. 베드로(행8:22-23): 사마리아의 시몬
 - b. 바울(행13:9-10; 16:16-18): 키프로스의 총독 서기오 바울, 마법사 엘루마
3. 주는 것(롬12:8)—다른 사람을 위해 큰돈과 시간을 희생하며 주는 것,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적 선물에는 관심이 많으나 이 선물에는 없다. 여러 교회들이 이 선물을 가졌다.
 - a. 예루살렘 교회(행4:32-37), b. 갈라디아 교회(갈4:15), c. 빌립보 교회(빌4:10-18)
 - d. 마케도니아의 교회들(고후8:1-5), e. 과부 여인(눅21:1-4, 이 렵돈)
4. 권면하는 것(롬12:8)—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 성경에서 성령님은 위로자로 나오는데(요14:16) 이 말과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권면하는 자는 위로자 성령님의 역할을 한다. 도전을 주고 격려하고 꾸짖는다.
5. 섬기는 것(롬12:7; 고전12:28)—육신적, 영적 문제에서 남을 섬기는 것, 도움을 주는 선물(고전 12:28). 모세와 그의 형 아론 그리고 훌(출17:8-12)
 - a. 도르가(행9:36-39), 율바, b. 뵤베(롬16:1-2), c. 오네시보로(딤후1:16-18)
 - d. 여호수아(수1:1)
6. 공활을 베푸는 것(롬12:8)—아픈 사람, 고통 받는 사람을 붙잡히 여기는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눅 10:30-37)
7. 다스리는 것(롬12:8; 고전12:28)—행정, 관리 능력, 디도(딤후1:4-5), 이것이 없이는 지역 교회의 성장이 멈춘다.
8. 믿음(고전12:9)—성경에는 세 종류의 믿음이 나온다(롬12:3).
 - a. 구원하는 믿음: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믿음(행16:31; 롬4:5; 5:1; 10:17)
 - b. 거룩히 구별하는 믿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믿음(갈2:20; 갈5:22; 엡6:16)
 - c. 청지기 믿음: 어떤 성도들에게만 주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큰일들을 기대하는 선물
9. 가르치는 것(롬12:7; 엡4:11; 고전12:28)—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장하게 하는 것
 - a. 바울(행20:27), 아볼로(행18:24-25), 아굴라와 브리스길라(행18:26)
10. 복음 전도자(엡4:11), 전도자의 선물이 아니라 전도자가 선물이다.
 - a. 개인적인 측면: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모든 성도들은 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 빌립(행8:5-12; 21:8), 베드로(행2:37-42), 바울(행19:18-20)
 - b. 선구자적인 측면: 교회를 세우는 것, 바울(행14:21-23; 15:41; 롬15:20)
11. 목사 겸 교사(엡4:11)—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양떼를 먹이는 것
 - a. 목사의 은사가 아니라 목사가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다.
 - b. 바울(행20:28), 베드로(벧전5:1-4)
 - c. 감독, 장로, 목사는 같은 직분(Office)에 대한 용어이다(딤후1:5; 7; 벧전5:1-2; 4; 행

20:17; 28), 감독(Episcopos, 감독하는 자, 직무의 의무), 장로(Presbuteros, 치리하는 자, 직무의 위엄), 목사(Poimen, 목자, 직무의 목적)

- d. 역사를 통해 감독과 장로라는 용어들이 성경적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를 쓴다.
- e. 목사의 목적: 교회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
- f.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엡4:11-16)
- g. 목사의 필수조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면(call) 교회가 임명하고(ordain)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 직책으로 구분하신다(행13:1-4).
- h. 목사는 복수여야 하는가?(행14:23; 행20:17; 약5:14), 부목사, 조력 목사(누구를 섬기는가? 여호수아, 디모데)
- i. 목사는 신학교를 나와야 하는가?
- j. 목사는 직업을 갖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 k. 좋은 교회의 태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

목사는 성도들의 요청에 귀를 잘 기울이며 특히 어려운 형제들의 사정을 도와야 한다.

2. 몸의 다양함(고전12:13-31)

다양함이 없으면 하나 됨이 획일화될 수 있고 그러면 조직이나 몸은 망하고 만다.

우리의 성경 혹은 교회 운동이 획일화로 나가면 결국 망하고 만다.

그런데 다양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 됨이 깨진다. 균형이 중요하다.

여기에 성숙함이 있다(고전13).

A. 몸이 살아서 성장하며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 기능이 필요하다(14-20).

- 1. 아무도 다른 지체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
- 2. 모든 지체가 다르며 다 중요하다.
- 3. 그럼에도 센세이셔널한 선물에만 관심을 두는 이들이 많다.
- 4. 다양함은 열등감을 뜻하지 않는다.

B. 서로를 의지해야 함을 알면서 하나 됨을 증진시켜야 한다(21-26).

- 1. 다양함은 하나님의 지혜이다.
- 2. 몸의 지체가 독립되면 병이나 죽음이 생긴다.
- 3. 지체들이 경쟁하면 다양성이 하나 됨을 파괴한다.

C. 다양성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27-31).

- 1.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필요한 선물들을 주신다.
- 2. 여기서는 선물의 중요성도 언급되어 있다. 타언어는 사실 맨 마지막이다.
- 3. 아무도 모든 선물을 갖지 못한다(29-30).
- 4. 가장 좋은 선물들을 구하라(고전14:1). 방언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강해 20

고린도전서 13장

예수님의 몸의 하나 됨과 다양성을 조화시키려면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사랑(charity)이다.

영적 선물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가진다. 은사는 모두를 위해 주어짐(고전12:7). 성숙한 지체, 성숙한 교회: 하나님 사랑, 지체 사랑,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랑.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피가 곧 사랑이다.

고전12:31,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라. 더욱 뛰어난 길을 따르라. 13장은 12, 14장의 괄호 가장 육신적인 교회, 13장, 13절, 성경에서 가장 오남용되고 있는 장

사랑만 하는 신(神)은 왜곡된 신, 미움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오류는 미워해야 한다. 깨끗한 것을 사랑하면 더러운 것을 미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다. 즉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요3:16; 롬5:8).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한다(요3:36).

I. 사랑은 풍성하게 해 준다(1-3)

방언(타언어), 대언, 지식, 믿음, 주는 것(희생)은 다른 이들을 풍성하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안 하느니 못하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것(엡4:15)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심(살전4:9)

아들의 사랑(요13:34-35)

1절: 사람들의 언어와 천사들의 언어를 말한다고 해도, 가정법이지 바울이 천사들의 언어를 말한 것이 아니다.

a. 사람들의 언어: 행2:8에 보면 처음으로 타언어 선물이 나온다. 총 18 나라의 말

b. 천사들은 무슨 말을 할까? 아무도 모른다.

c. 여기의 사랑은 love가 아니라 charity이다. Charity는 신약에만 28회(고전에만 12회), 그리스어 아가페는 총 117회, 89회는 Love로 번역됨. 어떤 이들은 요21장을 근거로 아가페와 필레오 등의 그리스말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의 용례는 그렇지 않다.

d.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charity라고 부른다. charity의 기본 의미는 주는 것이다. 자선(慈善) 단체(charity organization)

e.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본은 헌신적으로 주는 것이다.

f. 결혼 생활 이후에 곧 느끼는 것: 사랑은 주는 것이다.

g. 사랑 없이 땅의 모든 말과 하늘의 말을 한다면 징과 팽과리의 불협화음이 되고 만다.

2절: 대언, 신비, 지식, 믿음(마17:20), 1절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a.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I am nothing).

3절: 주고 희생하는 것,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으나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a. 주는 것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

b. 그리스도의 심판석(고전3:13).

c. 사랑이 없으면 유익을 못 준다.

II. 사랑은 세워준다(4-7), 고전8:1, 사랑 대신에 예수님과 본인의 이름을 넣어보라.

여기의 4 구절은 charity의 16가지 특징을 보여 준다(7개는 긍정적, 9개는 부정적인 것).

이 구절은 갈5:22-23의 성령의 열매와 매우 비슷하다.

영적 선물들의 목적: 세워 주는 것(고전14:3, 12, 17, 26)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뛰어난 길인 사랑이다.

그런데 (1) 고린도 성도들은 애찬 등에서 오래 참지 못하고 흥하게 행하였다. (2) 다른 사람의 은사를 탐하였다. (3) 교만하였다. (4) 서로를 고소하였다. (5) 교회 안의 죄를 자랑하였다(고전5).

4절: 오래 참는다(갈5:22의 성령의 열매).

- a. 오래 참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 charity(벧후1:5-7; 엡4:2)
- b. 친절함: 성도들(엡4:32), 불신자들(눅6:35-36)
- c. 시기하지 않음: 시기 질투는 교회의 문제(고전3:3), 육신의 열매(갈5:21), 자기를 높이는 것(갈5:26),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

5절: 무례히 혹은 보기에 좋지 않게(unseemly) 행동하지 않는다.

- a. 오순절 은사 집회, 어느 목사 교회의 청년들이 천주교회에 가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 정식으로 사과함
- b.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고전9장의 바울의 사례비 경우
- c. 쉽게 성내지 않는다. 화는 낼 수 있으나 쉽게 내지 말라.
- d.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선한 것 추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는 것(엡4:26, 32).

6절: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함.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목사들의 비리, 성경 교정자들의 죄악,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

7절: a. 모든 것을 참는다: 특히 부모와 교사와 목사

b. 모든 것을 믿는다: 물론 모든 것은 옳은 것을 말한다.

c. 모든 것을 바란다: 여기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이다. 휴거, 부활, 몸의 구속, 하나님의 간섭

d. 모든 것을 견뎌다: 마귀, 세상, 육신이 가져다주는 것(바울의 경우 고후11:23-28)

III.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8-13)

8절: 대언, 방언, 지식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 a. 대언, 방언, 방언 통역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이것을 (특히 방언) 크게 자랑하였다.
- b. 앞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오므로 지식은 없어진다. 과일 가격, 자동차 수리, 물리 공부
- c. 이런 것들은 언젠가 다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요일4:8, 16).

9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안다. 성경 예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 아는 사람은 없다.

10절: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 a. 성경의 완성, 문맥에서 지지받기 어렵다. 성경의 완성 이후에도 지식이 존재한다.
- b. 재림, 문맥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12절을 보면 확실하다.

11절: 고린도 성도들은 없어질 장난감을 사랑하는 아이들과 같다.

- a. 교회나 개인이나 모두 성장해야 한다(엡4:11-16; 고전14:20; 벧후3:18).
- b.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자라야 한다.

12절: 재림이 이루어져서 몸이 변하면 나에 대해, 모든 사람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13절: 재림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보는 것이 되고 소망은 모두 성취된다. 그러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이 셋 중 가장 크다.

- a. 물론 사랑이 다른 모든 은사보다 더욱 크다. 이것은 더욱 뛰어난 길이다(고전12:31).
- b. 그래서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전14:1).

고린도전서 강해 2

고린도전서 14장

예수님의 몸의 하나 됨과 다양성을 조화시키려면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사랑(charity)이다. 13장 사랑 설명, 이제 1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언과 타언어(방언)가 언급됨

1절: 사랑을 따르라. 사랑은 가장 뛰어난 길이다(고전12:31).

시103:7, 길들과 행적들(영적 선물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살기를 원하는 길을 볼 것이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영적 선물을 통해 자신의 행적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행적을 보는 것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그분을 아는 것을 택해야 한다. 후자는 종종 사람을 교만으로 이끈다.

대언: 하나님의 직통 계시(현재와 미래), 성경 기록 완성 전에 여전히 교회에 존재하였다.

'prophecy' 혹은 'prophet', 성경에 500회 이상 나오며 성경 기록 그 자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 영어사전: '예언하다', '예언자' No!!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대언'(代言)이며 성경의 용례 역시 전적으로 이것을 가리킨다. 개역성경도 출7:1, 겔37:4, 계19:10 등 10구절에서는 부득이 대언으로 바르게 번역했다.

성경 기록 자체가 대언이다. 흠정역: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벧후1:20-21). 개역: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눅11:50-54, 최초의 대언자,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대하24:20)

'선지자'나 '예언', 한국 교회 내에서도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 문제, 대언과 대언자가 맞는다.

아가보(행11:28)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 계19:10

여러 선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고전12:31)

2절: 알지 못하는 언어(방언)

새 언어(막16:17), 처음 접하는 새 언어

다른 언어(행2:4, 고전14:21), 말하는 사람의 모국어가 아님. 그런데 듣는 사람은 알아들음 알지 못하는 언어, 회중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통역이 있어야 함(본인 자신 13절 혹은 다른 사람 27절)

고린도 교회에는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한다.

즉 하나님만 아신다. 그럼에도 이것은 사람들의 말이다(고전13:1).

이 경우 그는 영 안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므로 신비들을 말한다(16절 참조).

- 여기의 신비란 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전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뜻함
- 여기의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 그의 영이다(고전2:11).
- 학습 방언의 폐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외음
-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면 세 종류의 언어가 나옴(사람의 말, 성령님의 말, 마귀의 말)
- "성경 어디에도 방언을 사모하라!"(covet)는 말이 없다. 방언을 하는 방법, 얻는 방법 No!!

3절: 대언은 사모해야 할 선물(14:39)

방언과 달리 대언은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1-3절만 보아도 방언이 아니라 대언을 사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방언은 이기적, 대언은 이타적

4절: 방언은 본인만 세워 줌.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6-9절, 본인이 이해하면 본인을 세워주지만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개나 고양이도 세워주지 못한다. 반면에 대언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즉 방언은 본인이 이해하면 오직 그 사람만 세워 준다(대언의 삼분의 일 효과).

5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방언이 아니라 대언을 하기 원하였다.

5절 전반부만 보면 방언을 하라는 것 같지만 후반부까지 보면 방언은 하지 말고 사실 대언을 하라는 것이다.

방언의 경우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에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6절: 바울은 타언어들, 계시, 지식, 대언, 교리를 말하였다.

바울의 경우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등 여러 개의 타언어를 말하였다(18절).

계시: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것, 지식: 자기가 아는 것, 대언: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 교리: 체계적 진리 모음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세워야 한다(지금은 지식과 교리만 가능하다).

7절: 소리의 구분이 없는 악기들, 뜻을 알 수 없다.

8절: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전쟁에 나갈 수 없다.

군대의 경우 좋은 명령이든 나쁜 명령이든 명확한 명령을 주어야 한다. 세월호 사건

9절: 뜻이 명백함

10절: 세상의 소리(voice), 즉 말(타언어)은 소리, 보이스(voice)이다. 모든 말은 의미가 있다.

11절: 야만인(barbarian), 원래 그 당시에는 문명 언어인 그리스말을 못하는 사람 즉 외국인

12절: 영적 선물들을 구하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구하라(고전12:7).

그러므로 방언은 구할 필요가 없다. 본인만 위하므로(4)

13절: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자는 통역하도록 해야 한다.

14-15절: 여기의 기도나 노래는 다 교회에서 하는 것을 뜻한다(16-17 참조).

그러므로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노래하면 알아듣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나 노래를 할 때 혼 줄을 놓고 피동적인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기쁜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행복감, 눈물의 기도 찬양 등).

그러나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

오순절 은사운동을 하는 친구들 특히 음악에 심취한 자들(Pat Boone 등), 마약에 의존하다가 구원받았

다고 하는데 이때 대대 스스로를 잃어버린 가운데 방언이 나옴. 하드록, 힙업 등 경험과 감정, 좋지만 여기에 베틱을 하면 망할 확률이 크다. 성경에 베틱을 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강해 2권

고린도전서 14장(5월 30일)

확실히 이해해야 할 것: 고린도전서의 타언어는 회중이 알지는 못하는 외국어

그 당시에는 여전히 타언어 은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지금 현대의 '쌀라쌀라' 방언과는 다르다.

13-14절: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한국말만 하는 사람이 중국어로 기도하거나 노래하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내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15절: 알지 못하는 언어로 영과 함께 기도나 노래를 할 때에 이해하는 것도 있어야 유익하다.

16-17절: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깨닫지 못하므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 당시에는 분명히 타언어 선물이 있었다. 어찌면 그 사람은 귀중한 것을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지는 못하였다. 아무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다.

18절: 바울의 타언어는 분명한 외국말이었다.

19절: 그는 타언어 은사가 있었지만 교회에서는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타언어의 효과 10,000 대 5, 0.05%, 대언이 2,000배나 낫다.

아무 필요가 없다. 누가 방언 이야기를 하거든 시간을 허비하며 들어주지 말라. 무익하다.

“방언 받고 성령침례 받아라” No!!!

지금 한 시간 성경 강해가 순복음 교회 전 교인 하루 방언보다 낫다.

20절: 어린아이를 벗어나라(고전3:2; 히5:12-14; 엡4:11-16)

21-22절: 타언어의 목적 및 합법적 용도

사28:11-12, 이사야 대언자 시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심판이 임하는 때

- 여기의 이 백성은 이스라엘(유다) 백성, 유대인과 표적(고전1:22)
- 이 대언 뒤 얼마가 지나 BC 721년경에 북왕국 10지파는 아시리아의 포로가 도함, 이사야 대언자는 남왕국 유다의 2지파에게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조롱을 당함(사28:7, 14-15, 18). 이것은 곧 “너희가 히브리말로 하는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아시리아와 바빌론 말을 하는 자들을 통해 심판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른 나라 말들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 모세와 예레미야도 비슷함(신28:49; 렘5:15).
-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에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였다(행2:4, 22-23, 40). 매우 배도한 시대

22절을 보면 타언어는 불신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1. 행2 불신 유대인 대상
2. 행10, 이방인들, 역시 대상은 불신 유대인들(그때까지 교회는 유대인 중심)
3. 행19, 요한의 제자들, 역시 불신 유대인들
4. 고린도 교회 역시 불신 유대인들 대상으로 방언이 주어짐. 예배 처소가 회당과 붙었음(행18:7).
5. 이 부분들 외에는 타언어가 언급된 곳이 없다.
6. 고린도 성도들은 타언어를 자랑하였으나 바울은 그것이 원래 불신 유대인들 대상임을 보여 줌

23절: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타언어(방언)를 말하려고 하였다.

큰 문제, 불신자가 보면 미쳤다고 함

24-25절: 그러나 창조, 성육신, 대신 속죄, 처녀 탄생, 재림과 휴거 등에 대해 설교를 들으면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옴, 목사의 대언(설교)을 통해 회심하는 일이 생긴다.

26절: 시편(노래), 교리(가르침), 타언어, 계시, 통역(타언어)

이 경우 타언어는 통역이 있으므로 남을 세울 수 있다.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안 된다(28).

그러므로 남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고 질서 있게 하라(40).

27-32절: 대언과 타언어의 규제

1. 방언은 남자만 한다(If any man, 27절), 40절 참조
2. 교회에서는 세 명 이상이 할 수 없다.
3.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한다. 4.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
5. 통역이 없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만 하라.
6. 대언도 비슷하다. 2-3명
7. 다만 판단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다(행17:11). 은사주의자들은 판단을 싫어한다.
8. 다른 사람에게 대언이 임하면 양보한다.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31)
9.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는다. 뒤로 넘어지거나 정신을 잃는 일은 없다.
10. 뒤로 넘어지는 사례는 요18:6에만 나온다.
11. 성도의 영은 성도에게 통제를 받는다(설교, 기도, 간증, 교제 등 모든 영역에서).

33절: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1. 마귀는 은사주의 집회(신사도 집회)에서 혼란을 일으킨다.
2. 초대 교회부터 1900년까지 방언 현상은 전혀 없었다(아주사 거짓 부흥).
3. 은사주의는 화평이 아니라 혼란의 도가니이다.
4. 성령의 열매(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34-35절: 방언은 여자들이 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자들의 문제가 있었다.

1. 교회에서 오남용되는 구절,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2. 여기서는 say, tell이 아니라 speak라는 단어가 사용됨. 즉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3. 자매들은 간증, 기도할 수 있다.
4. 다만 방언에 관한 한(혹은 대언에 관한 한), 자매들은 남편의 권위 하에 있어야 한다.
남편이 불신자이면, 성경을 모르면, 자매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목사가 그래서 필요하다.
5. 현대 교회 방언의 대부분은 여자들이 한다(딤후2:11-12).

36절: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그들만 대언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 바울도 대언자다.

37절: 그래서 바울의 말이 주님의 명령들을 인정해야 한다.

1. 남자가 타언어로 특히 통역이 없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면 아무도 세울 수 없다.
2. 그러므로 그는 교회에서는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
3. 여자들은 교회에서 방언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4. 다섯 마디 알아듣는 말이 알지 못하는 말 수만 마디보다 낫다.
5.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 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다.

38절: 듣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

1. 어떤 남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딤후3:10-11).
2. 세 종류의 사람 (a) 불신자(성경 자체를 안 믿는 사람), (b) 배도자(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압디는 사람), (c) 이단(성경을 꺾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사람; 롬16:17-18): 대부분의 은사주의자들
3. 그래서 성경 신자들은 대단히 외롭다(특히 목사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대거 양산됨).

39절: 그러므로 대언을 사모하라.

1.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라.
2. 타언어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직 그 시대에는 타언어 은사가 있었다(마10:5; 29:19). 다만 27-28절의 규칙대로 하라.

40절: 교회에서 은사 사용할 때의 규칙

1.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 성령님은 화평의 영이시다.

방언 요약: 교회에서 은사 사용할 때의 규칙

1. 다른 나라 말이다(성경에는 두 종류, 남이 알아드는 타국어, 회중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타국어), 현 시대의 방언은 이 둘이 아니다.

2.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전14:4, 19).

3. 악기처럼 방언은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전14:7).

4. 원래 타언어는 불신 유대인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5. 그러므로 구원받으면 타언어를 말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다.

6. 타언어(방언)의 규제

a. 모두 타언어를 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전12:30; 14:23).

b. 타언어가 아니라 설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고전14:24-25).

c. 타언어를 말하는 것은 소수로 한정되어야 하고 순서대로 통역을 해야 한다(고전14:27).

d. 여자들은 결코 타언어를 말해서는 안 된다(고전14:34).

e. 교회에서는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전14:40).

f. 그러므로 오늘날의 은사주의 방언은 여기서 다 벗어난다.

7. 타언어(방언)는 사라졌는가?

a. 고전 14장 이후에는 타언어가 없다.

b.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그리고 다른 신약성경 기록자들은 한 번도 타언어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c. 타언어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갈5:22-23). 영적 성숙의 척도가 아니다.

d. 바울은 타언어가 사라질 것을 보여주었다(고전13:8).

e. 타언어는 목사와 집사의 자격 요건이 아니다(딤후3, 딤후1).

f. 계2-3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지만 타언어에 대한 언급은 없다.

g.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를 위해 - 아프리카 야만 부족 등 - 타언어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특별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언어 선물은 사라졌다.

h. 현 시대의 오순절/은사주의 방언은 이교도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무익하다.

고린도전서 강해 23

고린도전서 15장

교회 다니는 이유: <구원받으려고>,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

구원은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상황에서, 존재에게서 구출받는 것'을 뜻한다. 구원 투수 인간의 문제: 죄, 죄성, 그래서 죽는다. 사망이 가장 큰 원수이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히2:14-15) 사망을 해결하려면 죄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는 3중적 요소가 있다. 롬8:28-30, 미리 아심, 선택(예정),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1. 과거의 구원(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천국에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신분)
2. 현재의 구원(죄의 파워로부터의 구원, 이 세상 삶에서 마귀, 세상, 나, 죄와 싸우는 것, 보상)
3. 미래의 구원(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 부활과 휴거, 지위)

구원받은 사람

- A. 1번은 해결됨, 2번: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내가 협조하며 이루어 감
- B. 구원에서 최종적인 단계인 3번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 C. 이 일을 위해 반드시 부활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려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50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

- A.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12절). 또 나쁜 친구들의 영향(33절)
- B. 그 당시 이교도들의 세상: 죽으면 끝이다. 혹은 윤회한다. 아직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혼동이 생김(행17:18-20; 23, 30-32)

1.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가?(1-19)

I. 복음의 정수는 부활이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A. 성도들의 구원(1-2)

1. 바울의 전도로 고린도 성도들은 구원받고 삶이 변하였다(2차 선교 여행, 행18:1-17, 적어도 1년 6개월). 선포 내용의 핵심: 죽은 구원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말씀을 신뢰하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 안에 지금 굳게 서 있다.
2. 기독교는 사회를 구원하는 데가 아니다. 영혼 구원이 최고 가치
3. 그것을 이루려면 복음이 필요하다. 복된 소식, 사복음서가 복음이 아니다.
4. 성경에는 몇 가지 복음이 나와 있다.
 - a. 왕국의 복음: 마24:14에 나오는 이 복음은 눅1:32-33에 예언된 것으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실 지상 왕국(王國)을 하나님께서 건설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다.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함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했지만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끝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교회가 공중으로 들린 이후에 이 왕국의 복음은 다시 선포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마24:14에 있는 예언 즉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 즉 세상의 끝이 오리라."는 말씀의 성취이다. 이 말씀은 현재 각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다.
 - b.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행20:24에 나오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좋은 소식이다. 이 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되어 있다. 롬1:1은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다(요3:16). 이 복음의 성격은 은혜이고(행20:24)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롬1:16; 고후10:14)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또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 혼에 화평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엡6:15). 한편 이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도 하는데(고후4:4; 딤편1:11) 이 복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서 특별히 영광 중에 계시고 영화롭게 되셨으며 많은 아들들에게 영광을 가져다주실 주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는 복음이다(히2:10). 이 복음은 그분의 재림과 관계가 있으며 특별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

- c. 영존하는 복음. 계14:6에 나오는 이 복음은 계시록에서 일곱 병의 심판이 있기 바로 전에 한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이다. 이것은 천사에게 맡겨진 유일한 복음으로 하늘의 왕국의 복음도, 은혜의 복음도 아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다(계14:7). 하나님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으니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라는 것이다.
- d. 다른 복음. 갈1:6-12; 고후11:4는 위의 복음들 이외의 다른 형태의 복음이 있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참된 복음을 왜곡시킨 것으로 여러 가지 미혹하는 형태를 취하며 주로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하고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복음이다(골 2:18-23; 히6:2). 그러나 이 가르침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은 갈1:8-9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설교자들과 교사들을 강하게 저주하였다.

고린도전서 강해 24

고린도전서 15장

1.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가?(1-19)

I. 복음의 정수는 부활이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A. 성도들의 구원(1-2), 지난 시간

B. 구약 성경(3-4)

1. 구약 성경 기록(출12의 유월절, 레16의 속죄일, 레23의 7명절, 사53의 구원자 등)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죽었다가 묻혔다가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2. 그리스도의 부활: 시16:8-11(행2:25-28); 시22:22(히2:12); 53:10-12; 시2:7(행13:32-33), 레23:9-14, 1월 14일 유월절, 1월 17일 초실절(20절에서 자세히 설명)

C. 증인들(5-7)

1. 여러 증인들(행1:22; 2:32; 3:15; 5:32 등)
2. 게바, 열두 사도(요20-21), 500여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요7:5; 행1:14)
3. 주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다.

D. 바울(8-11)

1. 다마스쿠스(행9:1-19, 1절 참조)
2. 주님의 부활은 바울의 삶에서도 변화를 일으켰다(딤후2:8; 고후11:22-30).

II. 부활의 의미(12-19)

A.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1. 바울의 논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

B.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12; 딤후2:16-18; 살전4:13-14).

C. 사람이 불멸의 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수 없다(13).

1. 개, 돼지 같은 짐승은 부활이 없다.

D. 그리스도는 100% 사람, 100% 하나님,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1. 복음 선포 허사, 2. 믿음 허사, 3. 거짓 증인, 4. 죄 가운데 있고 죽은 자들도 지옥에 있다(14-15, 17-19). 5.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19절)

2. 언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가?(20-28)

III. 부활 프로그램의 순서(20-28)

A. 그리스도는 첫 열매(20)

B. 초실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레23:9-14, 10-11)

1. 초실절의 첫째 교훈은 소유권에 대한 원리이다.

- a. 하나님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청지기들이다(시24:1; 고전10:26, 28). 이생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딤후전 6:7).
- b. 잘 익은 곡식의 첫 단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앞으로 수확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헌금의 원리: 고후9:6-8
- c.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유의 첫째 것들과 가장 좋은 것들이 그분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것을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권을 갖고 계신다(잠3:9; 마6:33).

2. 초실절의 둘째 교훈은 '신자의 안전'이다.

- a. 성도의 안전은 성도의 부활과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 b.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뒤에 논리적으로 뒤따르는 사건은 그분의 부활이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셨으며 이것은 곧 수확이 뒤따라 있을 것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D. 34절 설명, 구원받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엡5:10-11).

F. 부활이 없다면 몸을 마음대로 굴러도 된다. No!(고후6:14-7:1).

4. 어떻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가?(35-48)

V.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35-50)

A. 성경의 대답, 아무도 자세히 모른다. 요일3:2-3, 상상 이상의 몸이 된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하나님은 원리만 보여 주신다. 믿음을 가져라.

1. 알갱이를 뿌리면 몸이 나타난다.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 그리된다(요12:24, 36-38절).

2.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몸을 알갱이에게 주신다(보리, 벼, 밀, 옥수수 등).

3. 사람과 짐승의 육체가 다 다르다(39절).

4. 해와 달과 별들의 몸이 다르고 영광이 다 다르다(40-41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5. 썩는 것, 썩지 않는 것(42-44절)

6. 수치(다 운다), 영광(기뻐한다)

7. 연약함(죽음을 이기지 못한다. 병과 사고), 권능(힘이 있다)

8. 본성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 첫째 사람 아담의 형상,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형상(45-49절)

9. 그런데 부활하려면 순서 상 반드시 땅에 속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하늘에 속한 것이다.

즉 이 육체가 없으면 부활이 안 된다. 이 육체가 알갱이,

10. 천사, 짐승, 식물, 벌레 No!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만 부활의 기회가 주어진다.

11. 결론: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거기에 맞는 몸으로 바뀌어야 한다(50절).

VI. 부활은 신비이다(51-57)

A. 부활은 신비이다(51절): 아무도 알지 못하던 것,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아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것, 세상의 박사/교수라도 결코 알 수 없는 것

B. 마지막 나팔 소리: 왜 나팔 소리가 나는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백성이 모이는 일에 나팔을 사용하였다(출19:16-20). 고대 로마제국에서는 황제 앞으로 사람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다. '클래시킴'

1. 계시록 8-11장의 일곱 나팔의 마지막인가? No! 환난 통과자들의 주장, 3년 반 휴거 혹은 7년 통과 후 휴거

a. 계시록은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후 적어도 30-40년 뒤에 기록되었으므로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들은 계시록의 나팔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b. 성경의 연대기를 보면 일곱 나팔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사실 일곱 나팔 이후에도 나팔이 더 있다.

c.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도 나팔소리가 있다(마24:29-31).

d. 일곱 나팔 이후에도 여전히 장막절의 나팔이 적어도 1,000번은 더 울린다.

2. 여기의 마지막 나팔은 교회 프로그램의 마지막 나팔(살전4:16),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호이지 절대적 의미의 마지막 나팔이 아니다.

3. 고전15에서는 마지막 원수(사망 26절), 마지막 아담(그리스도, 45절), 마지막 나팔 소리(52절), 고전15는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다: 42-45,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4.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첫째 나팔과 여기의 마지막 나팔을 비교해 보면 된다.

5. 첫째 나팔은 출19:10-20, 이 모임은 율법 수여, 산에 닿기만 하면 죽는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사람을 정죄하여 죽인다. 사망의 직무이다(고후3:7-9).

6. 첫째 나팔: 사망의 직무의 시작(히12:18-21), 마지막 나팔은 사망을 누르고 이기는 승리

7. 부활이 이루어지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52절).

8. 그래서 사망이 승리가운데서 삼켜진다(54절). 율법의 나팔 vs. 은혜의 나팔

9. 사망, 사망의 쏘는 것(죄), 즉 사망을 일으키는 독은 죄이다. 그런 죄될 죄되게 하며 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율법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죄의 힘(율법)(56절), 죄, 사망, 율법은 함께 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저주에서 벗어났다(롬 6:14; 8:1).

10. 부활을 통해서 율법직무 즉 정죄하고 죽이는 직무가 정복당한다.

11. 그래서 출19장의 첫째 나팔 소리와 대비하여 여기의 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불린다.

C.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된다. 원자처럼 작은 단위의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신비이다.

D. 우리가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 할렐루야! “윤희, 소멸 다 거짓말이다.”

E. 이로써 마귀의 모든 계략이 수포로 돌아간다. 오히려 우리는 마귀의 개입으로 인해 아담보다 더 좋은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

F.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확증되었다(57절).

VII. 부활의 백성이 할 일(58절)

A.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한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B. 낙담하지 않는다. 우리의 몸, 교통사고, 암, 롬(8:35-39)

VIII. 결론

A.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구원이다.

B. 구원: 찬송가 343장, 울지 않아도 된다. 뜨거움이 없어도 된다. 참지 않아도 된다. 성경책을 많이 못 읽어도 된다. 현금, 주일 성수 못해도 된다. 믿으면 된다.

C. 믿으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다.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이 부활의 모든 것이다.

고린도전서 강해 26

고린도전서 16장

서신을 마감하면서 사도는 청지기로서 돈(1-4), 기회(5-9), 사람(10-24) 문제를 다룬다.

I. 성도들을 위한 모금(1-4)

A. 바울의 3차 선교 여행(행18:22-21:15)에서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호 헌금이 중요한 숙제

1.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빛진 자들이다(롬15:25-27).
2. 그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갈2:10).
3. 영적/육적 필요 감당
 - a.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팔아서 바친 자들이 많았다(행4:32-37, 5장)
 - b. 기근(행11:27-30)
4. 또한 바울은 이것을 기회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 추구
 - a.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므로 유대인들이 미워함(살전2:14-16)
 - b. 구제를 통해 자기와 이방인들인 유대인들을 사랑함을 보이려 함

B.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 행위이다.

1. 주의 첫 날에(주일)에 스스로 떼어놓는 일을 하였다. 문맥상 주일 예배 모임 때 그것을 가져온 것으로 보임
 - a. 이것은 영적 희생이다(빌4:18)
2. 헌금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미리 미리 준비해서 조직적으로 드려야 한다(2).
 - a. 빈부가 따로 없다.
 - b. 10%로 한정하지 않음
3. 한 마디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고후9:6-8)

C. 헌금은 투명하게 정직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1. 헌금 관리자들을 두었다(3-4).
2. 많은 교회의 헌금 비리

D. 부활 설명 후 58절에서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다음에 헌금이 나오는 것은 흥미롭다.

II. 시간과 기회 관리(5-9)

A. 바울은 시간 관리에 힘을 썼다(엡5:15-16).

1. 고린도전서는 빌립보에서 썼다. 마케도니아의 윗지방.
2. 잠정적인 계획: 마케도니아를 거쳐 방문하려 한다. 100% 확실한 것은 아니다(7절의 주께서 허락하시면)(약4:13-17).
3. 에베소(혹은 빌립보), 마케도니아, 고린도에서 겨울을 남, 모금을 가지고 유대로 가려 함
 - a.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며 그들과 함께 풀어야 할 것들이 있었다(고전11:34)
 - b. 11월-2월까지 겨울 향하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4.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계획이 두 차례 정도 바뀜
 - a. 둘째 계획: 고린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 다시 고린도로 와서 유대(고후1:15-16), 성사되지 않음.
 - b. 셋째 계획: 고린도에 갔다가 에베소 그리고 다시 드로아(에베소 위), 마케도니아 방문, 그리고 유대(고후2:12-13; 7:5), 힘든 여행이 이루어짐
5. 그리스도인은 상식과 기도와 상황을 판단해서 최선의 것을 택해야 한다(잠3:5-6).
6. 상황에 따라 우리의 계획이 변할 수 있지만(고후1:12-2:13) 그것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 a. 실수할까 봐 아예 결정이나 결심을 안 하는 것
- b.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이 둘을 피해야 한다.

7. 지금 바울에게는 에베소에서 문이 열려 있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일이 이미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을 돌보는 것보다 중요하였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함.

- a. 열린 문에는 대적들도 많다.
- b. 우리의 성경 사역,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이다.

III. 사람들과의 관계(10-24)

A. 바울의 서신 뒤에는 늘 그의 인생과 사역에 관련된 이들이 명단이 있다(롬16:5 이후, 딤후 4:9-10). 돈과 기회도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다.

1. 디모데(10-11): 경건한 가정 출신(딤후1:3-5), 빌2:19-23

2. 아볼로(12-14):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달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행 18:24-28), 고린도 교회를 위해 큰일을 함. 그를 따른 파당이 있었음((고전1:12; 3:4-8). 아볼로가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이 문제를 일으킴. 13-14절은 그 파당을 의식해서 쓴 말이다.

3. 스테바나와 그의 가정(15-18): 아가야의 첫 열매, 바울이 직접 침례를 줌(고전1:16). 이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줌(15),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함(16). 이들이 에베소로 와서 바울을 도움(17). 그들이 부족한 것을 제공하고 바울과 여러 사람의 영을 시원하게 함(17-28).

4. 아굴라와 브리스길라(19-20): 바울의 삶과 함께 엮인 부부(행18:1-3), 텐트 메이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가자 이 부부도 집을 사서 같이 감(행18:18). 여기서 이들이 아볼로를 발견하고 도와줌(행18:24-28). 롬16:3-5, 이런 부부들이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함

5. 거룩한 입맞춤(20), 악수

6. 바울은 대개 구술하고 다른 사람이 기록하였다(롬16:22). 여기서 그는 문안 인사를 직접 기록함(갈 6:11; 살후3:17).

7.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요3:16-21). 아나테마

9. 마라나타, 아람어 “주께서 임하신다.”

10. 그리스도의 은혜(23)

11. 바울의 사랑(24), 문제덩어리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잠27:6, 17)!!!!

고린도후서 강해 미(27)

고린도후서 1장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6년경(전서는 주후 55년경)

고린도 교회 설명; 분열, 음행, 결혼 이혼, 음식, 주의 만찬, 은사, 방언과 대언, 부활 등

구체적인 목적: 1. 타락한 자 회복(고후2:6-11), 2. 계획 변경 설명(고후1:15-22), 3. 사도직 변호(4:1-2; 10:1-1:21), 4. 구제 헌물 요청(고후8-9장)

내용: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며 고린도를 방문할 의사를 보였는데(고전 16:5-6) 이것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곧장 고린도로 가려던 이전의 계획과 다른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하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도는 크게 근심하였으며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에 대해 진솔하게 편지를 썼다. 여기에는 사도의 인간적 연약함, 영적 능력, 뜨거운 사랑, 상처받은 감정, 책망, 겸손, 연약한 자들을 위한 열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보와 고린도 교회 지체들의 성장을 위한 바람 등이 강한 호소와 함께 묘사되어 있다. 고린도후서는 특히 목회자를 위한 것이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들 대하는 태도

핵심 장: 5장(불멸의 약속)

핵심 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중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4:5)

핵심 단어: 사랑, 위안, 안위, 핵심 구: “사도의 표적”(12:12)

고린도후서의 그리스도: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주님(3:5)

영적 교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성도는 혹은 목사는 낙담하지 않는가?

바울의 큰 낙심(고후1:8), 바울도 사람이었다. 특히 목회자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 스펠전의 통풍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가?

1-2절: 바울의 서신 시작, 은혜와 평강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냄

3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바울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밖에 없다.
2. 공훈의 아버지: 아버지는 원천이 되는 분을 뜻한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8:44), 은혜와 공훈의 차이, 애3:22, 하나님의 공훈은 많다(느9:18-19), 부드럽다(시25:6), 크다(민14:19)
3.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 혹은 안위는 1:1-11에 10번이나 나온다. 바울의 상황이 안 좋았다.
4. 여기의 위로는 그저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바라보고 이기게 해 주는 것, 위로자(요14-16)
5.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통해 위로하신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행4:36)
6.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시121:1-2).

4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이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행3:6), 교회의 목적

1. 고후12장의 바울의 경험(12:7-10).
2. 고난 고통 환난:
 - a. 사람이기에 당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하는 것이 있다(딤후3:11-12).
 - b.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욕의 경우, 사람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 c. 고후12의 경우 고통이 바울에게 이득이 되었다.
 - d. 고통은 인격의 성숙을 가져온다(롬5:1-5).
 - e. 고통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히12:1-11).
3. 많은 경우 우리는 같이 올려주는 것 외에 할 말이 없다(롬12:15).

5절: 주님도 고난을 당하였다(히12:2).

1. 그래서 바울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였다(빌3:10).
2.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고후11:23-28) 동시에 위로도 받았다(약4:6).
3. 히11장의 믿음의 영웅들 모두 고난을 당하였다.

6절: 바울의 목회 심정

1. 바울의 고난과 위로는 다 성도들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고후12:28-29)
2.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는 요인: 구원

7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도 자기처럼 고난과 안위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확신함.

1.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한다.
2. 참고 견뎌내야 한다(히12:1-7).

8절: 아시아(고전16:8 에베소)에서 그에게 닥친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는 생명도 단념하였다.

1. 목회자의 심정, 과연 나는 목숨까지 버리면서 할 수 있을까?

9절: 죽음의 선고를 받음(고후7:5).

1.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고후12:10).
2.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일하신다.
3. 아브라함과 사라(롬4:18-22)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다.

1. 다윗의 고백(시34:6-7), 우리는 그분을 신뢰한다.
2.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 온 것: 460장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11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그를 도왔다.

1. 그들을 통해 그가 받은 선물: 죽음에서 벗어난 것
2. 바울의 일곱 차례 기도 요청(롬15:30-32; 엡6:19; 빌1:19; 골4:3; 살전5:25; 살후3:1; 몬22)
3. 이로써 여러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주님께 큰 영광이 된다.
4.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5.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신다(롬8:26).
6. 김문영 형제님

고린도후서 강해 2B(2B)

고린도후서 1장

어떻게 낙담을 극복하는가?

바울의 큰 낙심(고후1:8),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이유: 방문 연기, 원래 계획(고전16:2-8), 여러 이유로 못함, 또한 그 상태로 가면 책망이 너무 심할 것이기에 방문 연기(고후1:23)

12절: 이러자 고린도 성도들이 그를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함, No!

1. 단순함으로 하였다. 틴데일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음'이라고 번역함(즉 간교함이 없이). 기독교에서 simplicity는 대단히 중요한 말, 구약은 대단히 복잡하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시스템이 복잡하다. 구원 방법이 복잡하다. 기독교는 단순하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도리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후11:1-4). 예배, 교회 구조, 성도들의 삶
2.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진실함(고전11:1).
3. 이 둘의 반대가 육체의 지혜이다(욘수). 철학(골2:8)과 가짜 과학(딤후6:20)
4.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 성도의 삶의 자세: 성도가 교회에서 나갈 때도
5. 이것이 우리 양심의 증언이다. 양심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기능이다. 이것으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한다. 이것이 망가지면 구원받은 사람도 파멸에 이를 수 있다(딤후1:5; 18-20).
6. 목회자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13-14절: 12절 즉 나에 대한 것은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다.

1.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다(고전14:37).
2. 부분적으로(in part)의 의미: (a) 고린도 성도들 모두가 이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in part). (b) 바울의 그들의 구원의 일부가 되었다. 그의 사역으로 이루어졌다.
3.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 휴거의 날에는 특히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큰 기쁨이 될 것이다(살전 2:19-20).
4. 동료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당하면 함께 하고 위로 해라.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지 말라.
5. 교회 생활 하면서 목사와 성도가 늘 유념해야 할 사항, 입회 원서, 집사 서약 등: 교회를 같이 못하게 될 때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6.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험, 청교도들은 주의 만찬과 세례를 중요시하였다.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규례들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정식 교인의 아들딸들이 중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정식 교인이 됨, 에드워즈 No! 1756년 노샘프턴 교회(23년간 목회하던 교회, 해임 찬성 230표, 반대 23표)에서 해임됨, 조나단 에드워즈의 <심판 날 다시 만날 목사와 교인들>
7. 특히 목사에 대한 비난은 조심해야 한다(히12:17; 살전5:12-13; 딤후5:17-19).

15-16절: 둘째 계획

1. 첫째 계획: 마케도니아, 고린도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유대(고전16:5-6), No!
2. 둘째 계획: 먼저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거기서 유대, No!
3. 계획을 바꾸면서도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함(확신)
4. 두 번째 은택: 바울의 방문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롬1:11).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방언 등이 성령 세례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

17-18절: 경솔히 하지 않았다.

1. 육신에 따라 내 편리한 대로 하지 않았다.
2. 두 말 하지 않았다(마5:37; 약5:12).

19-20절: 예수님 안에는 예만 있다. 혹시 자신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복음에 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며

1.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I AM.
2. 나와 실바누스(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불변하신다.
3.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된다. '아멘'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요1:12), 본성에 참여하는 자(벧후1:4), 공동상속자(롬8:17), 함께하신다(히13:5-6), 기도들 들어주신다(요일 5:12-14) 등. 그분 밖에서는 모두 저주가 된다(요3:36; 살전5:3; 계20:15).
4.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아멘이시다(계3:14).
5.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20-21절: 하나님의 일

1.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신다.
2. 기름을 부으신다(요일2:20-27). 이 기름 부음은 영원하다(요14:16; 26-27; 16:13-14의 내주). 구약시대에는 왕과 대언자와 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았다. 신약 성도의 우월성
3. 봉인하신다(엡4:30).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4.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다(엡1:13-14). 첫 열매와 같은 것, 보증금
5. “주님의 재산(것)이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23절: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고린도전서의 바울의 모습).

24절: 사역자의 자세

1. 플레이어가 아니라 코치이다(벧전5:1-4).
2.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히12:2).
3. 교회 모임의 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강해 23(24)

고린도후서 2장

용서 촉구

바울은 사역이 힘든 가운데서도 큰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 고전5의 음행을 벌인 형제, 고후1:24의 실천
1절: 무거운 마음으로 가려 하지 않았다(고후1:23).

크리스천 사역에서는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종종 슬픔을 가져올 때가 있다. 자식들처럼

2절: 가자마자 그를 징계하면 거기 성도들은 슬픔에 빠지고 그러면 그는 더욱 슬퍼하게 된다.

3절: 여기의 바로 이것은 고전을 뜻하는 것 같음.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 어떤 식으로든 그의 기쁨이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함

비록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고자 하였다.

4절: 눈물을 흘리며 썼다(빌3:18; 행20:31), 목회자의 심정

음행을 벌인 형제에 대해 강하게 썼지만 그것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사랑을 알게 하려 함이다.

아이들을 책망할 때 부모의 심정(잠27:6)

바울은 모든 것에서(심지어 책망하는 것에서도)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자 애씀

5-6절: 음행을 행한 형제, 바울의 편지에 따라 교회가 모임을 열고 징계 조치를 취함. 그 형제를 위해.
그러자 그 형제가 죄를 회개하고 회복됨.

여기서도 바울은 이름을 대지 않고 사랑으로 행함

결국 그는 다른 성도들의 사랑으로 인해 회복되었다.

여기의 '어느 정도'(in part)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는 회중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징계는 사랑의 증거이다(히12:5-11, 특히 11절). 아이들을 키우는 데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쉬쉬하고 넘어간다. 엡4:15를 대면서. 이러면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 조용기, 김홍도, 전병욱 목사 등

<숨바꼭질>, 전목사의 성범죄 사실이 8명의 피해자 증언과 함께 담겨 있다. 여성 교인들을 당회장실로
부른 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변태적인 성추행을 일삼고, 심지어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왔던
예비신부까지 성추행했음.

전병욱 목사에 대한 비판을 불편해하는 글: “전병욱 목사의 비리를 고발한 숨바꼭질이라는 책 내용이
과장된 것이 아닙니까? 전병욱 목사가 릭 워렌과 같이 분명한 거짓 선지자로 밝혀진 것도 아닌데
그를 비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드러난 음행의 죄로 반역자들에게 쫓기던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
도 그 잘못에 대한 보응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전 목사님에 대한 일들이 사실일지라도 입을 다물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거짓이고 모함이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판했던 모든 분들은 이미 내뱉은 말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답글: 그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이미 씻지 못할 상처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꽃뱀'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당하기 힘든 또 다른 피해(2차 피해)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죄를 바르게 징계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단에는 목사 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엄격한 법이 있습니다. 성추행 간음과 같은 범죄행위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합의된 이혼도 목사의 직을 이행할 수 없는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목사에게 이런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이 직분이 가진 상징성과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전병욱 씨는 벌써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런 정당한 징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에 '숨바꼭질'과 같은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목사 개인의 명예를 논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 일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건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제사장의 탐욕으로 더럽혀진 사실에 분노하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해 채찍을 드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7절: 사랑은 용서하고 격려한다. 그가 지나친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용서하라.

8절: 나의 마음을 확실히 전해라. 용서하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된다. 교회가 세상 모임과는 다른 것을 알게 된다.

9-10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 징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제가 잘못할 때 우리는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 즉 그런 심각한 죄는 죄 지은 성도와 바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와 주님의 문제이다. 주님의 교회이므로, 그러므로 심각한 죄에 대해 교회 형제들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개역, NIV 등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으로 변개, 성도들의 제사장 직무 변개

11절: 이제는 교회를 위해 그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회개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교회에 널리 퍼지면 마귀에게 기회를 준다.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엡4:27-32). 특히 사탄은 성도를 좌절하게 만든다.

징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미 끝난 그 일은 잊어버려야 한다.

승리하는 믿음

에베소에서 바울의 상황: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음(고후1:8-9).

1. 디도의 상태를 모름, 2. 고린도 교회 문제, 3. 드로아에서의 복음 선포 기회
이러는 가운데 영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결국 마케도니아로 들어감.

나중에 7:5-6에 보면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것을 알 수 있음

14절: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다(롬8:28).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았다.

로마 장군의 개선 행진: 5,000명 이상을 죽이고 영토를 확장하는 경우, 황금 마차, 패잔병들, 전리품, 로마의 제사장들이 향을 피움. 이러면서 로마 시내를 뚫. 끝에는 패잔병들이 짐승들과 싸우며 죽임을 당함. 로마의 시민들이 환호하며 장군을 맞이함(롬8:37). 이때에 그 장군을 기리는(아는) 냄새가 거리에 풍겨남

15-16절: 그 냄새가 한 부류(패잔병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다른 부류에게는 삶의 환희의 냄새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향과 같은 존재임을 보여 줌.

그리스도인: 사망과 생명의 냄새를 피우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런 능력이 있느냐?(고후3:5)

상황이 어려워도 이길 수 있다(롬8:31, 37).

17절: 사역자(성도)의 자세,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들의 특징: 진실함에서 나지 않음,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음

말씀 부패: 성경 본문 부패(교부들, 알렉산드리아 학자들), 설교/본문 해석 부패(영해, 비유 해석)
대한성서공회, 연합성서공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경 보존을 믿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강해 4(30)

고린도후서 3장: 신약의 사역자

고후2:17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 짝퉁

바울 시대에도 짝퉁 선교사들이 많았다. 믿음과 함께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은혜+율법’ No!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자들. 할례를 받아야 한다(행15:1). 특히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이런 자들이 많았다(갈1:6-8; 3:1-3, 23-25; 5:1-3; 6:12-13).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고후11:4)

이들은 교묘하게 순진한 성도들을 유혹하였다(고후4:2).

이들은 자기를 추천하였다(고후10:12-18). 12, 17-18 참조

바울은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은혜와 율법의 차이를 보여 준다.

1-3절: 돌 판과 마음 판

짝퉁들은 유명한 인사들(주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다. 바울은 없었다.

바울은 그의 삶과 사역 자체가 추천서였다(갈1:1; 11-12; 2:6)

구약의 십계명 돌판: 보는 것이 좋고 영광스럽지만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돌 판은 외적인 것이고 성도들은 내적인 것이 필요하였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한다.

그러나 은혜의 사역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

고린도 성도들은 사악한자들이었으나 변화가 되었다(고전6:9-11).

이들 자체가 바울의 추천서이다(2). 모두가 다 알고 읽는다.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 판이 아니요, 마음 판에 쓴 것이다.

목회자의 성공 혹은 추천서는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지 통계 숫자가 아니다.

4-6절: 사망과 생명

먼저 바울은 이런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밝힌다(4-5).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고전 3:6-7)

바울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았다.

세상 공부, 신학 공부, 성경 읽기, 경전 서적 읽기 다 중요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다. 은혜로 되었다(고전15:10).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율법을 지켜라.” 이것은 많은 경우 성도들에게 자기 만족을 준다(기득권, 환난 통과 등).

구약은 글자로서 사람을 죽인다(출32:28). 신약은 영으로서 사람을 살린다(행2:41). 둘 다 오순절 문자 해석, 영적 비유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은 정죄와 사망의 직무, 신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람을 살리는 직무

율법이 불완전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거울과 같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 양시도 마찬가지로

율법: 도덕법(십계명), 의식법(절기, 헌물), 시민법(십일조, 희년, 안식일), 마5:17

구원받으려면 율법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고 죄의 확증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의 사역.

예수님의 등장 이전에 침례자 요한의 회개 사역(눅3:7-9)

교회에서 율법 사역을 하면 성도들이 죽는다(각종 법규 제정).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 모두가 죽는다(십일조, 주일성수, 새벽기도, 매일 교회 참석 등). 영이 아니라 육신 자랑

규칙이나 법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먼저 바뀌고 자발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해야 한다(고후 9:7-8).

렘31:31-34, 히8:7-13, 10:1-4

겔11:14-21; 36:25-27

고린도후서 강해 5(31)

고린도후서 3장: 신약의 사역자

고후2:17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 짝퉁, '은혜+율법' No!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

1-3절: 돌 판(글자)과 마음 판(영), 4-6절: 사망과 생명

7-19절: 사라지는 영광, 증대하는 영광

모세의 얼굴 사건(출34:29-35): 새 돌 판들에 말씀을 받아 옴.

구약의 율법에도 영광이 있었다: 율법 수여(출19:16-19), 성막 봉헌(출40:34-35) 등, 그러나 신약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7-8절: 신약의 직무는 사망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다.

율법 수여의 영광, 모세의 얼굴이 빛남, 그런데 그 율법은 사망을 가져옴. 그러면 생명을 가져오는 신약의 복음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가!(6절의 신약의 사역자)

율법은 영광스럽지만 본질 상 한계가 있다.

1.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갈2:16).
2. 의를 주지 못한다(갈2:21).
3. 성령님을 주지 못한다(갈3:2).
4. 상속 유업을 주지 못한다(갈3:18).
5. 자유를 주지 못한다(갈4:8-10).

9-10절: 신약의 직무는 정죄가 아니라 의이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직무를 수행한다(딤후1:5-11).

신약은 의를 제공하고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

사람의 필요는 의(義)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것을 거저 주신다(갈2:21).

1. 롬1:16-17, 3:21-24, 빌3:7-9
2. 율법을 지켜서 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유죄가 되어 결국 소망을 잃게 된다.
3.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시는 의를 받아야 사람이 변한다.

10절은 율법이 더 이상 영광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1. 구약은 끝이 났다. 신약 교회를 해야 한다.
2. 율법은 보호자에 지나지 않는다(갈4:1-5).
3. 지기에 너무 힘든 명에이다(갈5:1; 행15:10).
4.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골2:16-17).

11절: 신약의 영광은 영원하다. 율법은 이미 없어졌다. 끝났다.

실제로 AD70년에 성전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유대인들이 쫓겨났다.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든지 은혜와 율법을 섞으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 시대에 산다(3:18).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요1:16-17).

12-13절: 가리는 것과 드러내는 것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으므로 분명하게 말을 한다. 담대하게 말을 한다(KJB).

1. 행4:5-12, 18-20
2.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세의 얼굴의 영광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12-13).

1. 얼굴을 가린 것의 원래 목적: 사라질 것을 우려해서 가린 것이다.
2. 영광이 사라지는 리더를 누가 따를 것인가?

14-16절: 유대인들에 대한 적용

바울의 유대인 사랑(롬9:1-3)

1. 왜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가? 영적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
2. 행28:25-28
3.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는데 영의 눈이 가려져서 그 뜻을 알지 못한다.
4. 이사야서 53장, 썸 스텐: 폴란드의 유대인 랍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옮긴 젊은이가 전도함. 영어로 사53을 타이핑 쳐서 가져다 줌. 6절까지 읽음, 예수 그리스도 발견
<http://www.thechristianrabbi.org/>

이들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데 있다(16).

인류는 유대인들에게 빛을 지고 있다(요4:22).

그들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구해야 한다(롬10:1).

우리나라 교회들 혹은 우리는 어떤가? 혹시 아직도 구약의 베일이 마음을 덮고 있지는 않은가?

17절: 주님은 자유의 영이시다(17). 여기의 자유는 freedom이 아니라 liberty이다.

주님은 그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주님이시다. 인격체이시다(행5:3-4).

신약 교회는 영혼의 자유가 있다.

18절: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주님을 영광을 보고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홀로 올라갔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직접 모두에게 내려와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지성소에 들어간다(히10:19-20).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속에 있어서 그것을 방출한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영의 일이다.

그래서 그는 4:1에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강해 16(32)

고린도후서 4장: 낙심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의 사형 선고(고후1), 고린도 성도들의 추천서 문제 등 낙심할 일이 많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 1. 그는 신약의 유능한 사역자(고후3:6), 2. 자유를 얻은 성도(3:17-18) 그는 자기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있는 것으로 인해 용기를 얻었다.

사역(1-6)

1절: 그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역이 있었다. 사람에게 생명, 구원, 의를 주며 변화를 주는 사역, 이것은 하나님이 공물로 주시는 선물이다(딤후1:12-17).

우리 모두 섬기는 일이 있다. 이 일을 특권으로 생각하는가? 짐으로 생각하는가? 특히 목사들은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공정적으로 이 사역을 생각하였기에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2절: 이 사역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할례를 주장하는 자들과는 달리).

목사의 태도: 간교 No!,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모든 사람의 양심에 자신을 추천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속임수로 다룬다(고후2:17): 성경 변개(잠30:6; 계22:19).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사례

A.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둘째 인격체,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등, 그런데 물몬교도들에게는 예수는 사탄의 형제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크게 높여진 자를 뜻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이다. 따라서 같은 단어 예수는 그룹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간다.

B. 그분은 모든 사람(all men)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딤후4:1).

여기의 모든 사람은 누가 봐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의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이라고 주장한다(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빈부귀천, 흑인, 백인 등).

C. 다섯 솔라: 프로테스탄트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학 체계가 소위 다섯 솔라라 불리는 주장과 합치된다고 주장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직 성경대로 오직 믿음에 의해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다섯 솔라!’ 얼마나 좋은 말인가?

1. ‘Sola Scriptura’(오직 성경): 진리나 아니나의 유일한 권위는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인 성경에 있다. 그러나 신구약 구분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칼빈주의, 안식교)

2. ‘Solus Christus’(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천주교, 칼빈주의의 그리스도는 대리자를 통해 무자비하게 반대자들을 죽인다.

3. ‘Sola Gratia’(오직 은혜):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무료로 주어진다. 칼빈주의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4. ‘Sola Fide’(오직 믿음):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칼빈주의의 믿음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비택자는 믿으려 해도 못 믿는다.

5.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간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구속과 구원을 구분하지 못함.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고 주장한다.

3-4절: 그런데 왜 불신자들은 바울의 복음보다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가?(막4:4, 15) 불신자들의 생각이 이 세상의 신 마귀에 의해 가려졌기 때문이다(3장의 유대인들처럼 3:14-16). 그래서 그들은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한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요, 통치자로서 자기 백성을 어둠 속에 넣고 있다.

복음 선포자의 사명(행26:18)

‘하나님의 형상’이란 판박이를 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히1:3).

영광스러운 복음=영광으로 이끄는 복음

5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으므로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만을 선포하였다. Christianity is Christ!

그러나 할례주의자들은 자기를 추천하고 높였다(고후10:12-18).

쉽게 말해 그는 팬클럽을 조직하지 않았다. 목사는 이것을 조심해야한다.

6절: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것은 창조 때에 빛이 지구를 비친 것과 같다.

지구의 상태(창1:1), 3절의 빛 창조, 지구가 빛을 받음.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자들이 있다. 복음 사역이 바로 그 빛을 죽어 있는 자에게 준다.

고린도후서 강해 ㄱ(33)

고린도후서 4장: 낙심하지 않는다

보배(7-12)

- 7절: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6절) 혹은 영광의 복음 사역(1절)이 질그릇 속에 있다.
성경은 주님의 일꾼을 종종 그릇으로 표현한다(행9:15).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셨다. 선물과 재능을 필요대로 주신다.
그런데 사람(몸)은 매우 약하다(시103:14)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한 그릇을 비우고 깨끗하게 해서 내어드리는 것이다(딤후2:21).
질그릇인 이유: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빌3:3)
어느 면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질그릇 안에서 이루어짐(요1:14; 딤펢전3:16)
고난이 구원자기 되는 일에 필수 요소였다(히5:8-10)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질그릇이다.
- 8-9절: 바울의 고난 시리즈(8-9; 고후6:1-10; 11:16-12:10), 곁의 그릇과 속의 보배를 다룬다.
우리는 우리 자신(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를 잘 다루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릇을 지켜주실 주 믿었다(딤펢전1:11; 6:20).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었다.
어떤 때는 질그릇이 열려야 보배가 흘러나온다. 고통과 고난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 10-12 바울은 여러 가지 역설을 보여 준다. 질그릇-하나님의 권능(7),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11), 사망과 생명의 일(12), 한 마디로 갈2:20의 진실
사역자가 고난당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 한다: 목사, 성도, 교회가 다 그렇다.
우리 교회의 미디어 선교, 건물 헌금 등
할례주의자들은 이런 고통 없이 바울의 성도들을 빼앗아갔다.
목사에 대한 테스트는 별(stars)이 아니라 상처자국(scars)이다(갈6:17).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복음 사역의 보배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렘20:9; 17:15-16).

믿음(13-18)

- 13절: 믿음의 영=믿음의 자세 혹은 태도, 그는 시116:10의 기록자의 말에 동의함, 시편 116편의 기자는 큰 고난을 당함, 바울은 자기도 믿음으로 8-12절을 말한다고 함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사망이나 생명 혹은 고통과 시련이 와도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믿음
- 14절: 그는 최종 승리를 믿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약속함.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을 믿었다(살전4:13-18).
- 15절: 모든 것은 앞뒤 문맥상 바울의 고난과 고통.
고난 속에서 은혜를 주시므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에게 적용해도 된다: 고난도 다 우리를 위해 있다(롬8:28)
- 16절: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고후4:1). 고난을 통해 걸 사람은 썩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매일 더 좋아진다: 확신하는가? 너무 귀중하지만 늘 잊고 사는 말씀.
바울의 몸이 어땠을까?(고후11:23-27)
성령님의 전인 우리의 몸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럼에도 이 몸은 점차 썩으며 이것은 막을 수 없다.
열역학 제2 법칙
그래서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하루의 은혜와 기력을 주신다(마6:31-33).
- 17절: 지금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잠시와 영원, 가벼움과 무거움
바울은 자기의 모든 고난을 '가벼운 고난'이라고 한다. 과연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
바울의 고백(히12:4): 이슬람, 중남미 멕시코, 북한 등을 제외하면 이런 고난은 현시대에 없다.
고난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한다(롬8:35-39).

어떤 분의 제안: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암병동, 양로원, 장애아 병원 등을 방문해라.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고난이 가벼운 고난임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벼운 고난이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 이것 역시 인정하기가 어렵다.

욥기 42장, 그의 고난 1-2장, 하나님이 3장에 나타났으면 잠시 받는 고난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38장에 나타나신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에게는 고난이 길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한순간이다(시90:4, 9).

한 아이와 하나님과의 대화

1000년이 얼마나 되나요? 한순간이다.

10억은 얼마나 되나요? 10원이다.

10원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 한순간에 줄 수 있다.

우리는 늘 쫓겨 다닌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 늘 자신의 시간표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신다.

히12:10의 징계, 육신의 부모는 며칠 동안 징계한다. 그게 보통 20년가량, 하나님은 며칠로 보신다.

18절: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다.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요일2:15-17).

히11의 믿음의 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앞으로 나아갔다(히11:10, 13-14, 27).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과 물질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바른 세상관을 가지라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믿음으로 본다(히11:1; 10의 아브라함).

고전2:8-9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역설이다: 롬1:20, 히11:27

잠시 있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마24:35; 시119:89; 벧전1:23-25)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혼은 영원하지만 빌딩은 무너진다(마16:26).

이 말씀 뒤에 10절이 지나자마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온다(고후5:10).

고린도후서 강해 맘(34)

고린도후서 5장: 미래의 소망(1-8)

그리스도인은 사역(고후4:1), 보배(7), 믿음(13), 하나님의 건물(고후5:12)을 가지고 있다.

여기의 건물은 우리가 거할 집이 아니라(요14:1-6) 영화로운 몸이다.

바울은 장막(tent)을 짓는 사람(행18:1-3), 그래서 그는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한다.

텐트: 약하다, 멋이 없다. 영구하지 않다(벧후1:13-14).

영화로운 몸: 아름답다, 영구하다. 연약함이 없다(빌3:20-21).

고후4:7에서 바울은 사람의 몸을 질그릇으로 보았고 여기서는 장막으로 보았다.

영화로운 몸의 필요성과 실현(고전15:50; 요일3:2)

1절: 우리의 장막 집은 해체된다. 몸은 우리가 쓰는 집이다. 피어스 선교사님이 쓰던 집

성도가 죽으면 몸은 무덤에, 영과 혼은 주님께 직접 간다(빌1:20-25).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몸이 부활하고 영과 혼과 결합된다(고전15:50-54; 살전4:13-18).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것을 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보장(고후4:14)

2-3절: 장막에서 신음한다(고전15:42-44; 롬8:22-26).

암, 뇌졸중, 각종 아픔과 병 No!

그래서 우리는 종종 롬7:24-25를 외친다.

사실 바울은 자기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있기를 소망하였다(빌1:23).

영화로운 몸은 위에서 온다. 이 땅의 몸은 흙에서 온다(고전15:49).

바울은 죽음을 떠나는 것(departure)으로 보았다(딤후4:6). 이것은 장막을 걷고 옮기는 것이다.

거기서는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등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OK). 세상, 육신,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 곳 Very good!

4절: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함이다.

여기의 옷은 무엇인가?

구원받으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엡2:10).

선한 행위를 지속/유지해야 한다(딤후3:8).

계16:15와 19:8의 고운 아마 옷은 성도들의 의

그러므로 교리적인 의뿐만 아니라 실행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이 옷은 사람마다 다르다).

5절: 우리의 부활의 확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보증금이다(고후1:22; 엡1:13-14).

6-8절: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다.

우리는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둘 중 하나이다.

땅에 있으면 몸 안에서 집에 있다(빌1:21-24).

그래서 그는 고통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 faith, sight(see의 명사), sight의 반대 insight

어떤 믿음인가? 고후4:17-18

히11장의 믿음의 위인들: 그들에게 천국은 목적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삶의 동기가 되었다.

4장과 5장 8절: 사역, 보배, 믿음, 하나님의 건물로 인해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였다(롬8:37).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확신(죽는 것이 낫다)이 있어야 하고 날로 증가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강해 35

고린도후서 5장: 사역의 동기(9-21)

자, 그리스도인에게 사역, 보배, 믿음, 하나님의 진물이 있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혹은 '그러나'가 나온다(9, 11, 16, 17 등).

그리스도인의 섬김 사역은 무엇인가?

죄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고후5:11, 20)

그 일을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되 간교함으로 하지 않는다(살전2:3)

9절: 우리는 애쓰며 수고한다. 주님의 명예와 존귀를 위해 열심히 한다(갈1:10).

사람을 기쁘게 하면 망한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자(롬12:1; 14:18), 여기는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고전15:58).

어느 정도 수고했나? 롬15:19-20, 3차 선교 여행, 로마 여행 및 투옥

10절: 우리가 다 심판석 앞에 나타난다(롬14:8-10).

이 심판석은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상을 심판하는 자리이다(고전3:12-15).

일의 질과 일의 동기 판단(고전4:5), 회계보고 자리

수많은 성도들의 일이 불타고 그들은 겨우 구원만 받을 것이다.

가장 큰 일은 영혼 구원: 개인과 교회의 사역의 핵심

11절: 그래서 설득한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백성도 심판하신다(벧전4:17-18, 딤후1:18).

하나님 앞에 서면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골3:23-25).

공포(terror)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포

어떻게 심판을 예비하는가?

a. 투명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다(양심, 고후1:12).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히4:12-13).

큰 빌딩, 교인 수는 아무것도 아니다(삼상16:7).

12절: b.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다(12절). 고후3:1의 연속

반대자들은 사람의 칭찬이 담긴 추천장 자랑(요12:43)

13절: c. 모함을 무시해야 한다(13절).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고 주장함(행26:24). 사람들은 예수님도 미쳤다고 함(막3:21).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행24:14-15), 온전하다면 너희를 위해서

9-13절 요약: 하나님의 두려움, 사역에서 이것이 빠지면 허사가 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사6:1-7), 말씀에 대한 두려움(사66:2)

고린도후서 강해 10(36)

고린도후서 5장: 사역의 목적(14-21)

14절: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그리스도의 사랑(롬5:6-10), 8절, 그 사랑이 그를 강제로 이끈다(렘20:9).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대신해서) 죽었다.

‘모든 사람을 위해’(15절도), 그러므로 칼빈주의의 제한 속죄는 틀린다.

1. 모두를 위해(딤후2:6; 사53:6)
2. 모든 사람을 위해(히2:9)
3. 세상을 위해(요3:16)
4.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요일2:2)
5.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롬5:6)
6. 거짓 교사들을 위해(벧후2:1)
7. 많은 사람을 위해(마20:28)
8. 이스라엘을 위해(요11:50-51)
9. 교회를 위해(엡5:25)
10. ‘나’를 위해(갈2:20)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창조물에게 간다(막16:15-16).

바울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을 단언한다. 전가(imputation)의 교리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롬3:23; 엡2:1).

구원받기 전의 사람은 죽은 시체와 비슷하다. 죄 짐의 무게를 모른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갈2:20).

15절: 바울의 삶의 목적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산다(요일4:9).

여기의 ‘우리’는 ‘죽었다가 산 자들’이다. 그 이유(롬6:3-4)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 복음의 핵심: 십자가(죽음)와 부활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쾌락, 육신의 정욕, 명성, 재물, 무희생,

심지어 구원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전10:31).

여기에 성도들의 섬김이 있다. 해버겔 여사의 찬송 시(185장)

1절: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2절: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네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3절: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4절: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 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 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16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관점으로 삶을 보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지역, 출신 성분, 빈부귀천, 남녀노소, 직위, 심지어 일가친척도(빌3:4-6)

과거에는 심지어 그리스도도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다. 행9:1의 사울

4대 성인, 착한 사람, 위대한 분, 그제 인간 메시아 등, 그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말구유, 비천함, 목수, 십자가 등이 모두 육신적으로는 볼품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그리스도인(롬8:9)

바울 서신의 핵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 사람은 새 창조물: 하나님의 아들(요1:12),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벧후1:4), 소속 변경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는 행위, 그래서 개혁이 아니라 창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모든 것은 지나갔다. 여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빌3:12-14).

과거의 아픔, 고통, 핍박, 상처, 기억, 편견, 사랑, 자랑, 질투, 야망이 다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하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18-19절: 여기의 모든 것은 새롭게 된 모든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간: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가 이루어짐, 그래서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한다.

화해(reconciliation): 속죄(atonement), at-one-ment(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종교는 노력과 선행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려는 시도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나 물건, 혹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화해 사역을 한다고 한다.

우리의 범법을 우리가 담당하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화해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도 싸움꾼이 아니라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

20절: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다(대사 ambassador).

과거 로마제국에는 두 종류의 지방이 있었다.

자발적으로 로마와 친하게 지내며 화평을 유지하는 지방, 언제라도 반역하려고 기회를 보는 지방

황제는 반역하려는 지방에 대사들을 보내야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대사를 필요로 하는 곳, 대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복음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임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 엠베써더 칼리지’

주눅들 필요가 없다. 사실 그들이 감사해야 한다.

우리의 메시지 개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21절: 전가(imputation), 사실 화해는 전가에 근거한다. ‘죄와 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가 만족되었다. 그래서 화해가 가능하다.

십자가 사역의 핵심: 1. 하나님의 거룩함 만족, 2. 하나님의 사랑 확증

초림 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선포했지만 재림 때에는 전쟁을 선포하실 것이다(히 9:27-28).

5장 결론

하나님의 사역은 쉽지 않다.

1. 하나님의 두려움, 2. 그리스도의 사랑, 3. 화해의 말씀 사역

고린도후서 강해 11(37)

고린도후서 6장: 바울의 사역 변호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와 불신, 추천서 요구, 1-5장 바울의 사역

1-2장: 죽음의 선고, 그래도 승리하였다.

3장: 새 상속 언약의 사역은 영광스러운 사역, 그만 둘 수 없다.

4장: 대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는 사역

5장: 믿음으로 걷는 사역, 하나님의 대사, 화해 사역

6-7장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설득함
사람들의 큰 문제: 감사하지 않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의 사역을 감사하지 않았다.

1절: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고 일을 해야 한다(엡2:8-10, 고전3:9; 딤후2:6).

바울은 고후5:20의 대사가 되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다.

성도의 경우: 구원받은 뒤 열매를 맺지 못하면(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불신자의 경우: 구원받아야 한다.

2절: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라고 한다.

바울의 의심(고후13:5)

이 구절은 원래 메시아에 대한 사49:8인데 바울은 자유롭게 이것을 교회에 적용한다.

구원의 날은 어느 면에서 휴거 전까지의 신약시대로 볼 수 있다.

3-10절: 바울 자신의 예, 목사(사역자)의 일

3절: 복음 사역에서 가장 큰 방해물: 사역자가 본이 되지 못하는 것(딤후3:7)

4-5절: 사역자에게 닥치는 시험, 목사의 직무 묘사

인내, 고난, 궁핍, 곤경, 매 맞음, 투옥, 소동(행17), 수고(labor), 깨어 있음(잠을 못 잠), 금식
행20:18-21, 고후11:23-30

6-7절: 사역의 도구

순수함(딤후5:22), 지식(주님, 성경, 나 자신, 다른 사람), 오래 참음, 친절함, 성령님,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의의 병기(엡6:13)

8-10절: 자신의 증언, 많은 경우 사역자는 패러독스를 지닌 사람이다(빌4:12-13).

성도의 징계

롬5:2의 소망의 기쁨, 9:2의 근심

몸은 힘들어도 목사의 메시지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아무것도 없어도 다 소유한 자다(고전3:21-23).

모든 사람이 그를 이해하지는 않는다.

사람들 편에서는 악한 소문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였지만 고린도 성도들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바울은 그들이 자기를 인정하라고 이런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

자기의 속중심을 알리려고 한 것이다.

또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를 준 것이다.

11절: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정직하다.”

12절: 바울이 아니라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다.

13절: 마음을 열라.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영적 아버지다(고전4:15). 사랑으로 보답하라.

이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정혼시킨 사람들, 그런데 다른 남편을 따르려는 것 같다(고후11:1-3).

고린도후서 강해 12(3B)

고린도후서 6장: 분리(6:11-7:1)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를 받으라고 말한다(6:13-14).

한편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한다.

주범: 거짓 교사들(고후11:4),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고후10:7-10; 갈1:6-9)

그래서 바울은 분리를 요구한다.

분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

신약성경에서 분리(separation)에 대해 가장 잘 보여 주는 구절

많은 경우 하나님은 분리의 명수: 노아의 방주의 사람과 짐승, 아브라함, 유대인, 유대인도 지파별로 분리, 정한 짐승과 부정함 짐승(레11). 성도도 분리됨, 세상도 쫓개심(행17:26-27)

롬12:2, 요17:14-17, 요일2:15-17

분리는 진리를 걸러내는 일, 목사와 교사의 일: 분별과 분리(골4:23)

1. 성도의 집은 하늘, 세상은 땅, 2.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함, 세상은 아님, 3. 성도는 성경을 믿음

현 시대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시대(integration), 적그리스도는 통합의 명수(단8:25)

통합의 이유: (1) 두려움, (2) 많은 돈을 벌기 위함

온 세상이 통합 분위기라 분리라는 말/행위 자체가 배척을 당함

많은 교회들이 종교 일치 운동: “교회가 교회가 아니다.”

한편 분리가 고립(isolation)이 되면 안 된다: 독립교회들의 병폐

14-16절: 본성이 사귀를 결정한다. 돼지, 양, 물고기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녔다(벧후1:3-4).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사귀다.

명예: 두 짐승을 이어 주는 막대, 불공평한 명예(신22:10)

암3:3

사귀, 친교, 일치, 뭉, 조화

의와 불의,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

그래서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하나님과 사탄, 천국과 지옥 등).

16절의 너희는 교회 성도들: 이들 곧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개개인도 성전이다(고전6:19-20).

레26:12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

17절: 사52:11과 겔20:34-41

하나님의 백성은 더러운 데서 나와야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민33:50-56), 신약 교회(요 17:14-17), 하나님의 부르심(계18:4-5)

계시록에는 교회의 정결이 많이 나온다(계2:14-16; 20-24 등).

WCC 등과 분리하려면 다음을 실천해야 한다.

엡5:11, 롬16:17-18

그렇다고 세상과 완전히 결별할 수는 없다(고전5:9-10).

불신자와 일하고 불신자의 음식점에서 먹고 물건을 사고 등등.

의사는 병자를 만나 살펴보고 고친다. 그러면서 자신을 깨끗이 한다.

예수님의 예(히7:26; 눅7:34)

분리를 강조하다 보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바리새인의 뜻: 분리하는 자,

웃, 머리를 잘한다고 해서 신자는 아니다. 먼저 마음이 변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규율로 사람을 잡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을 만든다.

여기의 부정한 것은 7:1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

7장 1절: 이런 약속은 6:17-18의 약속, 영과 육의 더러움

육의 더러움(갈5:19-21; 마15:18-20; 롬13:14). 술 담배

담배: (1) 나쁜 본, (2) 나쁜 습관(사람을 지배한다), (3) 자연스럽게 못한 욕망을 키운다, (4) 병, (5) 시간과 돈 낭비, (6) 다른 사람을 괴롭힘

영의 더러움: 육의 더러움보다 훨씬 더 나쁘다. 바리새인: 모든 것이 깨끗한데 영이 더럽다(마 23:25-26).

독립침례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많다: 양복, 치마, 넥타이, 극장 No, 그런데 완고하고 교만하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다.

바울은 영과 육의 두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함을 말한다.

기준: 미심쩍으면 피하라. 대부분 그런 것은 더럽다.

과거의 카톨릭 종교 재판: 각종 기구로 성도들 재판, 그러면서 기구를 위해 기도함, 십자군 전쟁 용사들 축복, 성경을 버렸기에 양심이 마비되었다(요16:2).

성경을 읽고 거기에 따르려고 하면 양심이 살아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 알아가며 성장해야 한다(벧후3:18).

거룩함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벧전1:14-16; 레11:44-45)

거룩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다(잠8:13; 9:10; 10:27; 14:27 등).

고린도후서 강해 13(34)

고린도후서 7장: 회개와 회복(7:2-16)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함.

분리된 삶과 교제를 이루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실 것을 이야기함(6:17).

여기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한 이후에 받는 위로를 기술함(고후1:8-10; 2:12-13).

2-4절: 바울의 격려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디도를 받아들임(7:13). 이에 사도는 자기도 받아들이라고 말함(2).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특히 속여 빼앗지 않았다(2). 거짓 교사들의 거짓 주장(고후11:20; 12:13, 17),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딤후3:2).

심지어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3; 3:1). 또한 너희를 위해 살고 있다.

고린도 성도들 칭찬(4): 디도 영접,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할 기회가 생김, 바울의 기쁨

사실 이미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에 대해 자랑하였음(14)

5-12절: 디도의 격려

바울의 악한 상황(5), 지금과 달리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했다.

마케도니아(행16: 20): 바울에게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곳

디도가 온다는 좋은 소식(6): 디도를 보고 싶어 함(2:12-13), 서로 보고자 하였으나 못 보다가 드디어 보게 됨. 또한 바울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오아시스같이 디도의 소식이 옴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기쁨을 주는 자들인가?

우리가 나타나면 기쁨이 되는가?

통진당 해산 소식

디도가 가져온 좋은 소식(7): 고린도의 핵심 성도들은 변하지 않았다. 주님의 사역을 한다.

바울은 강력한 편지(고린도전서)를 쓰고 근심하였지만 그들은 회개하였다(8).

9절은 고전5-6장의 음행을 저지른 자 사건과 연관이 있다.

10절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 때문에 혹은 그분의 말씀 때문에 하는 근심은 좋다.

요약: “나는 별것 아닙니다. 거짓투성입니다.”

일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한다.

회개의 과정: 진실을 보여 주는 말씀, 당사자의 근심, 회개, 그 상황에서 구원, 그리고 개개인 사람의 변화(11)

11절의 변화가 있어야 참된 회개이다. 그 결과 바울이 그들을 책망한 것이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

12절: 바울은 음행한 자, 그로 인해 상처받은 자 때문에 그 편지를 쓰지 않았다. 모두에 대한 사랑

그러므로 목사는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쓰더라도 바르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쓰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관심 있는 목사의 애정 표현

회개(Repentance)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 180도 바꾸는 회개,

가룟 유다처럼 단순히 자기가 행한 일을 후회하는 경우에도 영어로 같은 단어가 쓰였다(마27:3). 180도에 미치지 못하는 회개

복음이 말하는 회개 즉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 지은 것을 미워하며 그것을 철저히 증오하면서 되돌아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들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뜻한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나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들의 용서가 거저 주어진다(마4:17; 행3:19; 11:18; 20:21; 26:20). 따라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참된 회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살해한 뒤에 나단 대언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발견된다(시51).

신약성경에서 침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다(눅13:3, 5).

예수님은 또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눅 15:10).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줄곧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행2:38; 3:19; 20:21; 26:20).

회개가 일어난 곳에서는 악을 버리고 죽은 행위로부터 떠나는 일과(행8:22; 히6:1)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발생한다(행20:21; 계16:9).

성경의 회개는 기도(왕상8:47), 믿음(막1:15), 침례(행2:38), 회심(행3:19), 겸손(마11:21) 등과 관계가 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며(눅15:7-10; 뱀후3:9) 동시에 그분의 명령이다(막6:12; 행17:30).

따라서 회개 없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며 그 이후에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를 고백한다고 말한다(요일1:9).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가 필요하다(계2:5, 16, 21; 3:3; 19 등).

한편 성경은 하나님도 repent 한다고 표현하는데(창6:6; 욥3:9-10 등) 이것은 결코 그분께서 사람처럼 무언가 잘못된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다만 그분께서 어떤 일에 대해 심히 슬퍼하는 것이나 그분의 섭리 속에서 사람이 마음을 바꾸듯 마음을 바꾸어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13-16절: 고린도 성도들의 디도 격려

고린도 성도들은 디도를 위로하였고 그의 영이 활력을 얻었다(13).

사역자도 활력을 얻어야 할 때가 있다(몬20-21). 바른 말씀에 순종할 때(요일4; 요삼3-4)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 진실로 드러남(14)

디도의 성도들 사랑(15)

바울의 신뢰 회복(16):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 이루어짐

결론

바울의 주요 메시지: 화해하게 하는 사역(고후5:18-21), 깨진 관계를 잘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쉽지 않다.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

목표: 우리는 다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 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요즘 교회의 특징: 자주 모이지 못한다. 인터넷 공간, 가십 거리가 많다. 만나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일단 사이트에 글을 올려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경우 카톡 방의 범람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특히 쓸데없는 말들이 오갈 때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강해 14(40)

고린도후서 8장: 헌금 01

고후8-9는 신약시대 헌금에 대해 가장 자세히 기록한 곳이다. 성도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한다. 8장에서 사도는 은혜로 헌금해야 함을 가르쳤고 9장에서는 그것을 실행할 때의 유익을 가르친다.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에게 헌금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헌금은 쉽지 않음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자랑했음에도 헌금에는 빈약하였다. 아이러니!

우리나라 성도들은 헌금에 톤 사람이 많아 알레르기 반응,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

헌금: 예배의 일부, 예배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는 행위

예수님의 말씀(행20:35)

헌금 즉 주는 것은 선물의 하나이다(롬12:8).

바울의 3회에 걸친 선교 여행의 목적 중 하나: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헌금(행11:27-30)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다는 것 외에도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연합 추구(롬15:25-28)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원수가 아닌 것을 유대인 성도들이 알게 하는 일(행20:17)

바울은 또한 사역의 초기부터 가난한 성도들을 잊지 않을 것을 작정함(갈2:6-10)

고린도 성도들은 구제 헌금 약속을 하고도 1년 동안 실행하지 않음(고후8:10)

이유: 영적인 타락, 교회가 영적으로 쇠약하면 헌금도 자연히 줄게 된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교 회귀주의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돈을 빼감(고후11:7-12, 20; 12:14).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 바울은 헌금이 은혜의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헌금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면서 특히 은혜임을 강조하였다.

헌금은 섬김 사역이요 교제이다(고후8:4).

헌금은 이방인들의 빛(롬15:27), 삶의 열매이다(롬15:28).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 결과이다. 그런데 헌금의 동기와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면 큰 복이 된다.

1. 환경에도 불구하고 헌금한다(1-2).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극심하게 가난하였다. 어쩌면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극심한 가난+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헌금, 컴퓨터로 계산할 수 없는 공식

이것은 마치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헌물과 비슷하였다(출35:5-6; 대상29:6-9).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환경에 상관없이 헌금하게 된다.

은혜는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1절의 은혜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쓰였다.

은혜(Grace): 은혜의 기간, 구원의 방도,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는 헌금하는 것이 은혜로 불림

2. 열정적으로 헌금한다(3-4).

풍성히 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안 하면 기쁨이 없다.

압력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였다. 심지어 그 프로그램에 넣어줄 것을 간청하였다(4).

3. 예수님처럼 자신을 드린다(5-9).

예수님은 섬김, 희생, 고난에서 우리의 본이 된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 내주었다(5).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물질을 드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후5:15).

이들은 사랑에 의거하여 드리게 되었다(7-8).

반면에 고린도 성도들은 선물(은사)은 많았지만 섬김과 헌금은 게을리 하였다. 우리는 어떤가?

선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교사 등으로 섬긴다고 해서 헌금 드리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목사, 선교사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안다고 해서 헌금 드리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아니라(7절) 물질로도 바울과 가난한 성도들을 사랑하여야만 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희생적으로 헌금하였다(9).

예수님은 부요하신, 강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친히 가난하게, 약하게 되셨다(고후13:3-4).
특히 성육신하실 때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롬8:17).

4. 자발적으로 드린다(10-12).

약속과 실행은 다른 것이다. 고린도 성도들은 1년 전에 디도에게 약속하였으나(6) 하지 않았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10-12).
자원한 뒤에는 실행이 있어야 한다(11; 빌2:12-13). 자원함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12절은 매우 중요하다(과부 여인의 헌금 눅21:1-4).

5. 균등의 원리로 드린다(13-15).

특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빛을 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건물도 있고 회중도 크다. 성경, 미디어 선교 사역 가능, 그래서 균등의 원리에
따라 더 해야 한다(14).

만나의 원리(출16:18-20).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았다.
많은 경우 헌금의 동기는 영적인 복이 되고, 헌금의 양은 물질적인 복이 된다. 참조 고전16:2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는 10%의 법칙이 없다. 할 수 있는 한 자발적으로 최대로 하라.
신약시대 헌금은 반드시 은혜로 해야 한다.

목사들에게 주는 교훈: 영적인 것을 충분히 먹이면 성도들이 목사들과 교회의 필요를 채운다.
은혜롭게 헌금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다.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 큰 재력가들도 교회에 많이 생기기를 원한다.
구약에서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범법 헌물(레5:6-7; 눅2:23-24)

6. 헌금 관리자로서의 의무(16-24)

헌금을 꼭 자기 교회에만 해야 하는가?

Yes: 그 교회가 성경적일 때는 1순위가 되어야 한다.

No: 그 교회가 비성경적일 때는 바른 기관에 헌금하는 것이 좋다.

1. 헌금 관리자는 자원해서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16-17). 교회의 재정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다. 재정 비리가 생기면 그 교회는 큰 타격을 입는다.

2. 헌금 관리자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18). 단순히 재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여기의 그 형제는 누구인지 모른다. 영적인 비즈니스의 최고봉은 물질적인
비즈니스이다. 물질 문제가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의 자격 중 하나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다(벧전5:2).

3.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19).

교회든 목사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든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

헌금 액수 밝히기 No!

하나님이 주신 돈을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서 그분에게 영광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재정을 맡아야 한다.

4. 정직한 평판이 있어야 한다(20-22).

바울은 헌금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였다(20).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명의 자격(행6:3), 특히 재정을 다루는 분들은 정직해야 한다.

5. 협조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23-24).

디도는 팀에서 좋은 멤버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목사들과 좋은 팀을 이루어야 한다.

자매들은 마소와 좋은 팀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려 하였다.

고린도후서 강해 15(41)

고린도후서 9장: 헌금 02

고후8-9는 신약시대 헌금에 대해 가장 자세히 기록한 곳이다.

헌금은 실제적인 문제이면서도 교리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7절은 헌금과 하나님 사랑, 8절은 가장 큰 약속

1. 헌금은 다른 성도들을 자극한다(1-5).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 더 쓸 필요가 없다(1): 고전16:1-4

섬김에서 그리스도인은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랑과 선행에서는 그리해야 한다(히10:24).

다른 사람의 삶에서 주님이 일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섬기게 된다.

김문영 형제님, 종혁이 이야기

다만 분발하게 하는 일이 인간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를 잘 구별해야 한다.

그러면 개개인의 액수를 광고해야 하는가? No!(마6:1-4) 교회 전체 액수 OK!

확실한 것은 열심 있는 성도들은 기도, 일, 증언, 헌금 등에서 다른 사람을 자극한다(2).

흥미로운 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예로 들며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자극하였다(2).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다(4).

바울은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고린도로 보내어 그들이 헌금할 것을 격려했다(고후8:16-24).

또 어떻게 헌금할 것인지도 알려주었다(고전16:1-4).

따라서 그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바울은 자기들 일행이 도착하면 헌금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랐다(5).

그때에 허겁지겁 하는 것 No!

5절의 탐욕에서 난 것 같다는 말은 바울의 재촉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했다는 것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가 당황하게 됨(4). 이번에는 마케도니아 사람들도 같이 감(4).

얼마를 약속하느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지켜야 함을 말함.

핸드폰, 차 계약; 매달 얼마가 나감,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도 계획을 해야 한다.

여기의 헌금은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다(1).

또 그것은 동시에 후한 선물이다(5). 마음에서 후하게 내는 것이지 목사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2. 헌금은 본인에게 복을 준다(6-11): 헌금의 원리는 6절과 갈6:7-8에 들어 있다.

a. 심는 대로 거둔다(6). 육신과 성령의 밭, 이 원리를 잊을 때마다 롬8:32를 기억하라.

b. 바른 동기로 심어야 한다(7-9). 농부에게는 동기가 중요하지 않다. 좋은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다르다. 마음의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아무 소용없다(7).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즐거이 내야 한다(잠22:9).

이것이 잘 안되면 먼저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억지로 낸 헌금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없다.

c. 헌금을 하면 즉시 복을 받는다(8-11).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즉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주신다(8). 모두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할 수 있다(8, 빌4:13; 요4:14).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나눈다(9): 시112:9, 시112는 주께로 마음을 고정한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음을 보여 준다. 특히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은 그에게 의의 보상을 준다. 인격의 향상

3. 헌금은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만족시킨다(12).

바울은 헌금을 가리켜 '섬김의 직무'라고 하였다. 이것은 구약 시대 제사장들의 섬김을 떠오르게 한다.

제사장 직무는 그 당시 가장 큰 섬김, 이 정도로 헌금은 중요한 것이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짐승 대신 헌금을 드린다. 이것은 영적인 희생물(빌4:10-20)
 고린도후서의 헌금은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것: 이방인들이 여러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
 불평과 불만이 끼면 은혜의 헌금이 되지 못한다. 갈6:10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로 인해 헌금이 넘쳐야 한다(12).

4. 헌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13). 즉 헌금은 믿음의 실행이다.

마5:16

유대인 성도들의 감사: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감사, 그들의 순종에 대한 감사
 중국 성도들, 대전, 광주, 분당, 동탄 성도들
 성경 암송 카드 엽서 3,000세트, 국내외 거의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므로 더 많이 하여야 한다.

5. 헌금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묶는다(14-15).

그 결과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 감사함
 이방인 성도들은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였고 이에 대해 유대인 성도들은 형제애를 느낌
 그 결과 그들은 서로 기도하게 되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15).
 이제 다시 한 번 8, 9장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로 헌금하는 것을 실천하자.
 우리 교회의 미디어 선교 사역, 구제, 선교사 지원 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기를 원한다.

고린도후서 강해 16(42)

고린도후서 10장: 영적 전투

고전에서는 강하게 썼다. 고후1-8에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였다.

고후9-13에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강하게 쓴다.

목사가 질문/도전을 받고 답할 때 신중해야 한다.

고린도 교회: 분열, 거짓 교사, 영적 혼란 등, 다른 교회 문제없음(고상함), 그래서 고전후는 실제적이다.

특히 외적 은사를 복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많았다.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자들

고후1-8: 자신의 사역, 진지함, 헌금 등, 부드럽게 간청하는 심정으로

고후10-13: 직접 거짓 교사들을 대적함, 심지어 사탄의 사역자들(고후11:12-15). 거짓 교사들은 '자기자랑'이 특징이라 자랑이라는 말이 20여 회나 나옴.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함. 할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도 연약함만 자랑함.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역과 사도직을 변호함

1. 영적 전투 방법(1-6)

1절은 사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주장(9-10)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설립 목적: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고전2:2)

출생 및 성장 배경이 사람의 성품 결정: 독재 가정 혹은 자유 가정

자유가 잘못 인식되면 방종으로 이끈다: 바울은 자기를 낮추었는데(고후1:24) 그것이 문제가 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권능이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있음을 망각함(1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마11:29),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분노하심(마23:13-33; 요2:13-16).

우리 교회도 이런 위협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바울의 간청(2): 강하게 대하지 않으면 좋겠다.

영적 전투 요약(3-4): 반대자들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실제로는 내적인 것(영적인 것)

그들은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판단함(2-3).

그러나 바울은 육신에 거하면서도 영적인 방법으로 대적함(고전2:4-5; 엡6:10).

4절은 마16:18을 생각나게 함, 그런데 무기는 영적인 무기

영적인 전투로 요새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교회는 전쟁하는 곳이다: 이것을 놓치면 패배한다.

헛된 상상(자기 방법으로 뜻대로 생각하는 것, 주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높이는 것(역시 과거의 직분 등) 조심해야 한다(5). 내 말과 행동이 누구를 위하는가 살펴봐야 함

더는 용납하지 못함. 아예 기초를 파괴시키려 함

요새와 성벽을 무너뜨린 뒤 적군 체포, 여기서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킴
모든 일이 먼저 생각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생각을 잘 조절해야 한다(렘17:9-10).

이 일을 위해서는 성경에 내 자신을 내놓고 투명하게 조명해야 한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결국 응징을 당한다(6).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순종하고 피해야 한다.

2. 영적 권위 사용 방법(7-11)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7):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인정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통치 방식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심(막10:35-45).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온유함을 그의 연약함으로 착각하고 그에게 권위가 없다고 함(7)
많은 이들이 강압적이고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는 목사를 권위 있다고 착각함(왕상19:11 참조).

바울은 권위가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 교회를 세우려고(8)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차이: 교회를 세우려 하는가, 자신을 세우려 하는가?

거짓 교사들의 주장: "바울은 거짓 사도", 그러면 고린도 교회 자체도 거짓 교회

바울의 사역과 그의 사적인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12-14).

목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 삶과 사역이 같이 가야 한다(11).

따로 따로 가면 위선자, 나와 우리 가정

특히 목사가 성도와 교제하지 않으면 큰 문제, 그런데 교제하다 보면 방종이 생긴다.

목사는 형제지만 리더이다.

교회의 지도력은 항상 부부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전한 가정(남편/아내) 강조

목사도 마찬가지로: 목사와 사모는 한 몸이다. 같은 생각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교회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헛된 비방과 방종으로 이어지면 더는 그냥 두기 어렵다.

바울은 자신의 선포와 글에 모순이 없다고 확인함(9-11). 편지로 강하게 쓸 때는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만나서 온유하게 대할 때에도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엄중하게 하여야 한다.

심지어 강하게 쓸 때에도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차 있었다.

목사들의 당면 문제: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나가려 함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의 영적 성숙도와 성품이 드러난다.

지혜로운 목사: 부모와 같이 매를 들 때와 온유하게 대할 때를 잘 구별한다.

권위를 얻기 위해 매를 드는가, 존경을 얻기 위해 매를 드는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 추천서, 출신 학교 자랑

그러나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18), 그것은 일로 드러난다(갈6:17).

3. 영적 사역 판단 방법(12-18)

영적 사역의 크기를 재려는 것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된다.

계시록 2-3장의 일곱 교회 평가: 예수님의 평가 방법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특히 계3:14-22 많은 경우 수자의 증가를 기준으로 삼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부정하지도 말자.

잘못된 평가 방법(12):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방법대로 외적 성장(추천서 등)으로 주로 평가함
울법주의자들은 '해라', '하지 말라' 명단으로 판단함

참된 평가 방법(13-18)

1. 나는 하나님이 있기 원하시는 곳에 있는가?(13-14):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또한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가려 하였다(롬15:20)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영역 중 하나가 고린도라고 말함 (13). 즉 고린도는 거짓 교사들의 영역이 아니라 바울의 영역임. 교회를 새로 세울 때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 유명한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과 일로 내 것을 평가하지 말라. 신실하게 임하라(고전 4:2).

2. 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15-17), 다른 사람의 영역 안에서 놀며 자기를 자랑하지는 않는가?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일 즉 자기 일을 하려고 해야 한다. 렘9:23-24 인용

우리의 일에 대한 최종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진다(고전4:5).

사람이 영광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사42:8).

큰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임을 사랑해야 한다.

3. 주님께서 내 일을 추천하시는가?(18), 자신의 칭찬, 다른 사람의 칭찬은 주님의 칭찬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 많은 경우 주님의 인정은 시험을 통해 온다(재정 문제, 이단 교리, 교만한 성도들 등).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주님이 인정하신다(고후10:17).

고린도후서 강해 17(43)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의 문제 해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생겼고 그 일이 누룩처럼 퍼지게 되었다. 바울이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면 ‘자랑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을 아버지로 비유하며 문제를 풀어간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10:10), 바울은 이것을 허물려 하였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질투(1-6)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질투하는 것은 합당하다. 남편과 아내, 심지어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출20:5; 34:14; 신4:24; 5:9; 6:15, 수24:19)

애국자의 나라 사랑, 자유 사랑, 아버지의 자식 사랑 그 결과 질투하게 된다.

여기서는 정혼한 처녀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1절: 바울의 설명이 불가피함,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이런 차원에서 어리석게 보이기를 자청함

2절: 바울은 지역 교회를 그리스도와 정혼한 순결한 신부(엡5:23; 롬7:4)로 보았다.

이 신부에는 남자들도 포함된다. 이것은 신비이다(엡5:31-32).

결혼의 두 단계; 정혼, 결혼은 신랑이 다시 온 뒤에 이루어짐(계19:1-9)

정혼과 결혼 사이에 교회 즉 신부는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특히 아내는 신실함을 유지하고 다른 남자에게 정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품에 안기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남편이 질투한다.

3절: 뱀이 이브를 속였다. 그 결과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되었다.

그리스도교의 특징: 단순함, 세상 종교는 복잡하다.

기독교는 단순하다: 한 하나님, 구원(믿음, 은혜), 구원의 안전 보장, 어린양의 피, 단번 속죄
여기의 단순함은 말 그대로 일편단심을 말한다.

계2:4의 에베소 교회는 첫 사랑을 잃었다.

성도가 사랑을 잃게 될 때 그 배후에는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이 있다.

사탄은 여러 계략들을 이용한다(고후2:11). 불신자의 마음을 가린다(고후4:4). 신자들도 속인다(11:3).

마귀가 일하는 장소: 마음 혹은 생각(mind)에서 거짓말로 일한다.

이브의 타락 단계: (1)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더냐? (2)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너희가 죽지 않는다.”, (3) 너희가 신들같이 된다(창3:1, 4-5).

4절: 마귀의 일꾼(11:13-15), 세뇌시켜 결국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다른 예수: 카톨릭, 해방신학, 토착화 신학

다른 영: 오순절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다른 복음=한 마디로 ‘은혜(믿음)+행위

바울은 자기의 딸 같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아버지처럼 질투하며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다.

바울과 거짓 사도들(5-15)

5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음(딤후1:12-16).

6절: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지만(고후10:10)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보통 그리스 학자들처럼 수사기법을 쓰지 않고 단순하게 말하였다. 그 이유(고전1:17; 2:4)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말에 능통하였다(롬16:18). 청산유수로 사람을 흘린다.

바울은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었다. 목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 자기를 숨기면 안 된다. 위선은 안 된다. 바울의 증언(고후1:12)

고린도후서 강해 16(44)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의 문제 해결-2

7절: 바울은 장막을 만들면서 자비량 목회를 하였다(행18:1-3).

8절: 심지어 다른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나 고린도 교회에게서는 안 받았다.

그 이유는 고전9장에 있다(1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9절: 다른 형제들의 지원

부모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있다. 부모는 늘 희생하지만 자식들은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10절: 바울의 말은 진실이다.

11절: 돈을 받지 않은 이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12절: 내 인생에서 해 온 일 = 거저 복음을 선포하는 일

가짜들의 자랑: 자기들도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형태로 돈을 받았거나 부자여서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서 기회를 빼앗기 위해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13절: 그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함

14절: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함, 마귀는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New Age의 빛의 천사, 원래는 울부짖는 사자(벧전5:8)

15절: 마귀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함

‘가장’이란 말은 ‘transform’이다. ‘형태를 바꾼다’는 뜻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목사인데 마귀의 사역자가 있다(마7:21-23).

현시대 성도들이 정신을 집중해서 이것을 가려내야 한다.

거짓/가짜 목사가 너무 많다. 가려내는 방법: 언행, 열매가 사도 바울과 같은가?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목사는 목사인데 성도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 그 결과 목사 혐오증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염려(16-33)

16절: 하는 수 없이 자기의 자랑을 하지만 실제로 그의 핵심은 28절에 있다. 교회에 대한 염려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결코 알 수 없다. 바울과 고린도교회의 관계

할 수 없이 자랑한다(고후11:1, 16-17).

17절: ‘주를 따라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글이 영감 받지 않았음을 뜻하지 않는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주님처럼 자기가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10:1). 심지어 하나님은 바울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 글에 영감을 주신다.

18-20절: 사실 거짓 교사들은 자랑을 많이 하였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자랑을 쉽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도 자랑한다(잠26:5).

거짓 교사들의 자랑은 말 그대로 자기 자랑,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

거짓 교사들은 실제로 거짓 교리로 그들을 속박하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얼굴을 치는 자들(20)

21절: 바울의 아이러니,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리하지 못하였다.”

성도들이 좋은 목사와 좋지 않은 목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진다.

목사의 온유함을 연약함으로 알면 안 된다.

22절: 그들의 출신과 배경(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 바울도 같다.

23절: 그리스도의 사역자, 말할 필요도 없다.

23절 후반부부터 27절은 그리스도로 인해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여 준다. 현시대 목사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고통, 목회자의 자격: 비난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11:21; 히13:13)

1차선교여행: 2,200km, 2차: 5,000km, 3차: 6,000km, 로마 여행: 3-4000km 총 17,000km, 적어도 2만킬로미터 이상을 걸어서, 배타고 다녔다.

27절: 이런 여행 끝에 그에게 닥친 일

28절: 이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였다.

목회자의 일: 외부의 일, 내부의 일

29절: 특히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30절: 그래서 나는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31절: 내 말은 진실이다.

32-33절: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자기가 당한 수치도 말한다(행9장 회심 이후).

거짓 교사들 중에 누가 이런 것을 자랑하느냐?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가지를 소망하였다(행20:24).

행20:17-25, 눈물 나는 이야기

고린도후서 강해 19(45)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의 문제 해결-3

12장은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클라이맥스, 자랑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음. 11장은 육체의 자랑, 12장은 영적인 자랑, 자기를 낮추기 위해 3인칭으로 자신을 표현함

바울의 영광(1-6절)

유대주의자들은 추천서(고후3:1)를 받고 스스로 영광을 구하려 함.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기록함(갈1:1).

1절: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

A. 환상들, 1. 영광의 주님(행9:3; 22:6), 2. 아나니아 환상(행9:12), 2. 이방인 환상(행22:17)
4. 마케도니아 사람들(행16:9), 5. 고린도(행18:9-10), 6. 예루살렘(행23:11), 7. 로마 이송배(행27:23)

B. 영적 진리의 계시(엡3:1-6), 현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2-3절: 그는 14년쯤 전에 돌에 맞아 하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옴(행14:8-19).

유대인 랍비들은 종종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함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도 모름,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경험

눅16의 부자처럼 그는 몸이 있었고 입, 코, 귀 다 있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그는 14년 동안 한 번도 발설하지 않음. 이 기간에

그는 마귀의 사자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발설하지 않음(12:7).

4절: 낙원으로 올라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낙원이 땅 아래에 있었음(눅23:43).

예수님이 거기로 내려가서 강도를 만남. 부활하시면서 낙원을 셋째 하늘로 옮기심(엡4:).

거기서 그는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음: 오직 하나님(어쩌면 천사들)만 하실 수 있는 말들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경험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모세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엘리야도 땅에서, 하늘에서 그분을 본 사람은 유일하게 바울 하나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

현시대에 천국/지옥 다녀왔다는 가짜들이 범람한다. No! 예수님의 말씀(눅16:30-31): 다섯 형제 우리는 죽어서야 하늘에 가지만 구원 받는 순간 우리는 실제로 하늘에 앉아 있다(엡2:6).

이 기간에 그는 수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이길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것은 진리라 해도 감추어야 한다.

5-6절: 바울의 겸손, 오직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런 자랑, 자기 자랑을 펴는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7-10절)

7절: 하나님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바울을 위해 그를 낮추심, 사탄의 사자가 그의 몸을 침. 그대로 두면 그가 타락할까 봐.

사람의 고난의 원인: 1. 사람이므로(늙어서 아파서 등등), 2. 다윗과 같이 주님을 대적하므로 3.

인격 성장을 위해(롬5:1-5), 이 경우 당사자는 힘들지만 그래도 유익이 된다.

마귀의 사자가 준 육체의 가시는 분명히 몸의 병이다. 무엇인지는 모름(갈4:13-14).

하나님은 사탄이 성도들 치는 것도 허락하신다(욥1-2). 완전 지배는 불가능

사자가 괴롭게 하므로 그의 고통은 늘 지속되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 1. 하나님을 미워함, 2. 무감각(유익 없음), 3. 자기 힘으로 참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붕괴됨

유명한 목사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스펠전의 통풍). J. 프랭크 노리스(1877-1952), 20세기 매우 중요한 근본주의 침례교 목사, 1909년 텍사스 포트워쓰 제일침례교회, 44년 시무

1935년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의 템플 침례교회 목사(2000킬로미터), 두 교회 동시 담임, 총 26,000명, 그 당시 가장 큰 교회, 16년 동안 비행기와 열차로 시무함

1926년 그는 천주교를 반대하며 친 카톨릭 시장인 Meacham을 공개적으로 반대함. 바로 그해에 시장의 친구인 Chipps라는 사람이 교회 사무실에 들어와 그를 위협하자 그를 총으로 쏘서 죽임. 자기 방어로 판결이 났지만 이 일로 인해 그는 평생 어려움을 겪음.

고린도후서 강해 2부(46)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의 문제 해결-3

변화무쌍한 바울의 경험: 낙원과 고통

8절: 바울은 이 일로 죄를 짓지 않았다. 기도했으나 기대하던 응답이 없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히4:16; 요일5:14 참조

주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무병장수 No!! 심지어 바울도 병에 걸리고 낫지 못하였다(딤후전5:23; 딤후 4:20).

9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은 공유하지 못하게 하셨으나 땅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공유하게 하심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은혜

- a. 영적인 일(고후3:4-6; 딤후전1:12-17)
- b. 물질적인 일(9:8)
- c. 육체적인 일(12:9)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이후에도 보호한다.

우리의 기도는 대개 다른 것을 대신 달라는 것이다(병에서 건강, 고통에서 구조 등).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한 것을 주지 않고 대신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경우 병과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도 OK.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마귀의 사자를 제거하지 않으셨다. 그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경우 심지어 몸의 병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

이리 되려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심지어 하나님은 설명도 없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끝....

이 은혜를 수용하자 비극이 기쁨으로 바뀔

불신자도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참을 수 있다.

하물며 성도의 인내는 우리를 환경과 감정 이상으로 들어 올리고 고통이 유익이 되게 한다.

죽을 때에 악한 병에 걸렸을 때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10절: 그 결과 그는 자기의 연약함과 수치를 기뻐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고후11:23-30이다.

나는 사도다(11-13절)

11-13절: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

바울이 어리석게 자랑하기 전에 그들은 자기들의 사도를 자랑했어야 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 중 어느 누구보다 더 사도의 자격이 있었다.

그는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다(12절).

초기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특별 직무 수행자들이 있었다: 사도와 대언자, 목사 겸 교사, 복음 전도자 등(엡2:20; 4:11).

사도: 파송된 자, 사도의 자격은 증인(행1:21-22; 2:32; 3:15), 특히 주님을 보아야 한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바울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가 되었고 이것이 종종 문제가 되었다.

바울은 행9에서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직접 주님을 만났다(행9:1-6, 15; 고전9:1).

사도들은 말로만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표적을 행하였다(고후12:12; 히2:1-4).

지금은 이런 사도들이 없다.

오순절은사운동, 신사도들은 다 가짜다. 마귀의 종이다.

임무를 잘 수행하는 주일 학교 교사, 목사 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안 된다(딤후전5:17; 히13:7, 17).

목사의 자세(14-18절)

14절: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한다. 부모의 심정

15절: 바울이 더 사랑해도 그들은 덜 사랑함. 아이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신실하게 사역을 수행함

16절: 바울의 유일한 잘못: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은 것

이런 것이 오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함

17-18절: 바울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

19절: 바울은 모든 것을 자기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해 함, 목회자의 자세

20-21절: 그들의 문제는 성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죄들을(20-21절) 척결하기를 바랐다.

바울을 낮추시는 것: 바울이 성도로 생각한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면 혹은 심각한 죄를 지어 처벌할

수밖에 없으면 바울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목사의 부끄러움

이런 죄들이 교회 안에 있다.

우리는 어떤가?

고린도후서 강해 21(47)

고린도후서 13장: 바울의 경고와 격려

1-2절: 바울은 교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을 알아야 했다(신19:15; 민35:30; 마18:16).

교회의 징계(discipline)

1. 이유: 무질서를 조장하고 교회의 간증을 잃게 하는 언행
 - a. 이단 교리: 구원 상실, 환난 통과, 다른 성경 OK.
 - b. 교우들 간의 분쟁(파당), 간음 등의 부도덕, 중상모략, 배우자 폭행
2. 유형과 근거
 - a. 주님이 자녀들을 징계함(히12:6)
 - b.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벧전1:16)
 - c. 세상을 향한 간증 유지(벧전4:13-19)
3. 목적
 - a. 선한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 b. 죄를 지은 성도 회복
 - c. 건전한 교리 유지
 - d. 대상이 구원받지 못한 경우 구원
 - e. 교회의 본보기
 - f. 그냥 두는 경우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들
4. 방법
 - a. 영적인 사람들이 주관한다(갈6:1).
 - b. 주님의 방법대로(마18:15-20)
 - c. 편파성 없이(고전4:6)
5. 회복
 - a. 당사자의 회개 및 보상(필요한 경우)
 - b. 성도들에게 마음의 순수함을 증명해서 보여야 함
 - b. 교회의 용서, 위로, 사랑

3-4절: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바울은 약하다(고후10:7-11). 바울의 대답: 예수님처럼 나는 약할 때 강하다. 십자가는 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권능이다(고전1:18).

싸우는 방법(고후10:1-6)

교회의 지도자는 약할 때와 강할 때를 잘 구별해야 한다.

목사가 소리를 지른다고 강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 강약이 어우러져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게 되는 것, 강하게 되는 것을 다 배워야 한다(빌4:11-13).

사역의 성공 여부: 교회와 헌금의 크기, 유명세, 혹은 인품

5-6절: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너희가 나를 점검하는데(고후13:3) 사실은 너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교회에서 많은 경우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큰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

여기의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리(유3)

바울의 권고: 먼저 너희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하라.

- a.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느냐(롬8:9, 16)?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까.
- b. 형제들을 사랑하느냐(요일3:14)?
- c.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느냐?(마7:15-20), 언행이 바른가?
- d. 세상을 이기고 구별된 삶을 사느냐(요일5:4)?

교회들의 문제는 많은 경우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reprobates) 즉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았다가 잃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

7-8절: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우리는 너희가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목사의 심정: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돼도 너희는 정직한 것을 행하기 원한다(롬9:1-3).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만 일하는 자들이다. 부정직은 No!(잠21:3)

나는 진리의 복음만 전한다(고전9:16).

9-13절: 바울의 위로와 격려

1. 바울은 그들의 완전함과 강건함을 기도하였다. 여기의 완전함은 영적 성숙함을 뜻한다.

제대로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엡4:11-16).

성도의 균형 잡힌 성장과 사역은 고립되면 이를 수 없다.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한다(잠27:17), 그래서 성도는 교제를 통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2.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서신을 받고 그것으로 교정되기를 원하였다. 바울의 직접 교정보다 바로 그 서신(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교정해야 한다. 하나님께 직접 책망을 듣기 전에 어떤 경우는 무너뜨려야 제대로 세울 수 있다(렘1:7-10). 농부가 잡초를 제거하는 것 성도들의 잘못된 상상을 무너뜨려야 한다(고후10:4-6).

집의 경우 신축이 있고 재건축이 있다: 많은 경우 신축이 더 쉽다.

성도들도 새 성도가 쉬운 경우가 많다. 오래된 성도는 갈아엎을 일이 너무 많다.

3. 은혜, 평강, 사랑을 키워라(11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런 것을 보아야 한다.

4. 거룩한 입맞춤과 문안(12-13절)

14절: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마28:19)

1. 그리스도의 은혜: 비천하게 사람이 되심

2.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죽음

3. 성령님의 교통: 오순절 이후 성령님의 충만과 내주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은혜, 사랑, 교통이 필요하다.

민6:24-27과 비교하면 아주 좋다.

4. 교회는 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복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사람의 프로그램, 계획, 노력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만으로는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없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 안에서 걸을 때 성숙할 수 있다.

5. 이런 기도 구문을 가지고 목사가 축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목사가 손을 들어 복을 끌어다가 줄 수 없다. 구약 개념이요, 제사장 사고의 결과이다.

신약시대 목사는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6. 고후13:14의 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